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지도교수 박 정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홍 승 희

2006년 8월 일

#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지도교수 박 정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4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홍승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梁 鎭 健 인

심 사 위 원 박 중 필 인

심 사 위 원 박 정 환 인

<국문 초록>

##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홍 승 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본 연구는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 분석하여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와 설문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에 의존한 양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5일수업제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자와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는 교사 242부, 학생 767부 그리고 학부모 625부, 총 1,634부의 회수된 설문지를 최종 유효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자료 처리를 위하여 SPS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주5일수업제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의 차를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 $\chi^2$ )을 실시하였다.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에 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월1회의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만족하고, 주5일수업제는 학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며, 토요일휴업일에 학생들이 느낀 어려움은 '사회적 여건 미흡', 교사는 '평일의 과도한 학습량 지도', 학부모는 '어려움이 없다',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 순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실시된 월2회의 토요일휴업일 운영 형태는 재택학습과 등교 중에서 선택하고 있으며,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둘째,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에 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주5일수업제로 인해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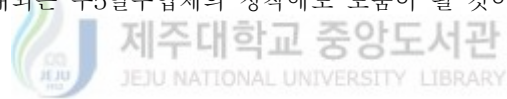
---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일 수업 부담을 느끼며, 이에 대한 해결은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한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 시행에 적합한 수업일수는 현행 법정 수업일수 220일에서 휴업일 34일을 감한 ‘186일’로 인식한다. 주5일수업제의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 및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하며,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교사는 ‘교육과정 구성 및 편제 개선’, 학부모는 ‘사회교육시설 확충’으로 인식한다.

셋째,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에 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의 구축 정도는 ‘부족하다’고 인식하며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는 ‘1~2가지’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볼 때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주5일수업제에 알맞은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체제 및 협력 관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 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되는 주5일수업제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목 차

<국문초록>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연구 제한점 .....	4
<b>II. 이론적 배경</b> .....	5
1. 주5일수업제의 필요성과 의의 .....	5
2. 국내의 주5일수업제 연구 .....	15
3. 외국의 주5일수업제 연구 .....	23
4.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	29
<b>III. 연구 방법</b> .....	35
1. 연구 대상 .....	35
2. 연구 도구 .....	37
3. 연구 절차 .....	39
4. 자료 처리 .....	39
<b>IV. 연구 결과 및 해석</b> .....	40
1.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 .....	40
2.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	56
3.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	64
4. 논의 .....	70
<b>V. 요약, 결론 및 제언</b> .....	78
1. 요약 .....	78
2. 결론 .....	83
3. 제언 .....	85

<참고문헌> ..... 86  
<Abstract> ..... 90  
<부록 : 설문지> ..... 92



## 표 목 차

<표 II-1> 주요 주5일수업제 국내 연구학교 사례 .....	20
<표 II-2> 프랑스의 수업 유형 .....	23
<표 III-1> 교사의 일반적 특성 .....	36
<표 III-2> 학생의 일반적 특성 .....	36
<표 III-3>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 .....	37
<표 III-4> 설문지 문항 구성표 .....	37
<표 IV-1> 주5일수업제 만족도 .....	40
<표 IV-2>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 .....	41
<표 IV-3> 학생들에게 나타난 부정적 영향 .....	42
<표 IV-4> 주5일수업제가 학력에 미친 영향 .....	43
<표 IV-5> 토요일휴업일에 학생들이 느낀 어려움 .....	44
<표 IV-6> 교사, 학부모가 느낀 어려움 .....	45
<표 IV-7> 토요일휴업일 활용의 바람직한 계획과 실천 .....	46
<표 IV-8-1> 작년 토요일휴업일에 주로 한 일(교사) .....	47
<표 IV-8-2> 작년 토요일휴업일에 주로 한 일(학생) .....	48
<표 IV-8-3> 작년 토요일휴업일에 주로 한 일(학부모) .....	49
<표 IV-9> 올해 토요일휴업일에 (권장)하고 싶은 활동 .....	50
<표 IV-10> 올해 토요일휴업일의 학교 등교 계획(학생) .....	51
<표 IV-11> 올해 토요일휴업일 운영 형태(학생) .....	52

<표 IV-12> 원하는 주5일수업제 운영 형태 .....	53
<표 IV-13>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	54
<표 IV-14>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시행 연도 .....	55
<표 IV-15>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 .....	56
<표 IV-16> 부족한 수업일수(시수) 확보 계획(교사) .....	57
<표 IV-17>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수업일수(교사) .....	58
<표 IV-18> 확대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	59
<표 IV-19> 교육과정 개편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교사) .....	60
<표 IV-20-1> 평일 7교시 운영 여부 .....	61
<표 IV-20-2> 평일 수업증가에 대한 부담 정도 .....	62
<표 IV-21>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수업 부담 해소 방안 .....	63
<표 IV-22>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	64
<표 IV-23>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 정도 .....	65
<표 IV-24>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 .....	66
<표 IV-25> 토요일수업일에 필요한 인력확보 방안 .....	67
<표 IV-26> 토요일수업일에 개방하기 적합한 학교 시설 .....	68
<표 IV-27>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 .....	69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여유있는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켰다.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단계적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결정되었고, 그동안 노동계 중심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요구가 증폭되어 ‘제1금융권의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2002.7.1)’ 조치가 있었으며, 2003년 8월 근로기준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마침내 주 40시간 근무제 사회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공기업, 금융, 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2011년에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근로기준법 2003.3.19.부칙).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주5일수업제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점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교육계에서도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해 1995년 주5일수업제가 제안된 이래 연구학교 운영(전남 사창초등학교 1996~7, 경기 왕곡초등학교 2001~2, 제주 한림여자중학교 2002~3, 인천 안남중학교 2003~4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1998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주5일수업제를 실시할 경우 연간 수업일수를 10%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5일수업제 실시의 법적 기반을 갖추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정책연구(박순경, 2005; 이도인, 2003; 이윤미, 2001; 정광희, 2000; 류한구, 1999 등) 과제 수행을 통해 주5일수업제 시행을 위한 준비도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

주5일수업제는 ①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형성과 타 직종의 주5일 근무제 확산이라는 사회적 변화, ②지식보다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학력관의 등장, ③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교육체제의 필요성 증대, ④교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및 평생 교육 필요성 강조 등의 교육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⑤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 및 보장과 같은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2).

그러나 학교에서의 주5일수업제는 주5일 근무제와 달리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해야 할 학교가 갑자기 주2일(토, 일)의 부분을 가정과 지역사회에 일임해 버린다면 가정생활 지도의 문제, 학력저하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5일수업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학교 뿐 아니라 동시에 가정과 지역 사회를 연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도인(2005; 1999)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주5일수업제란 단순히 학교의 수업일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 사회를 연계한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본래의 기능을 찾음과 동시에 가정과 지역 사회의 교육력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주5일수업제 도입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을 위해 가정·학교·지역 사회가 교육의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 분담을 서로 확인하고 책임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시스템 확립을 요구한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지금 우리의 교육은 주5일 수업제 도입과 함께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수준별 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였고 학생들의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하여 이와 같은 제반 목표들이 실현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제7차 교육과정은 주5일수업제의 탄력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작년(2005학년도 월1회, 2006학년도 월2회)부터 시작된 주5일수업제 시행은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안에서 시수감축 없이 이루어져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과 교사에게 학습부담 및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목표 달성의 정도는 수정하지 않은 채 시간만 조절하여 과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주5일수업제 시행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가정·사회에 대한 교육력 회복이라는 취지에 맞게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의 운영 현황,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를 파악하여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주5일수업제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수업제의 운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위의 인식을 바탕으로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 3. 연구 제한점

가.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및 그 학부모와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초등학교, 고등학교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나. 연구 범위는 내용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 현황, 교육과정,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주5일수업제의 필요성과 의의

우리나라의 '주5일수업제'에 대한 논의는 2000년 5월 17일 노·사·정위원회 내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기본 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추진되는 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주5일수업제'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한 사례로 이미 1996년에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교육부지정 연구학교가 운영된 바 있으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여건의 성숙'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주5일수업제의 필요성, 관련된 이론,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주5일수업제의 필요성

먼저 우리나라 주5일수업제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1996~1997년도에 주5일수업제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 2개교(전남 사창초등학교, 경남 마산해운초등학교)가 운영되었고, 2000년 12월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후, 임금근로자의 주5일 근무제 실시 추세와 자영업자 등의 주5일 영업환경 조성, 사회의 교육적 인프라 구축 상황,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추이를 보아, 단계적으로 실시(월1회→월2회→완전 실시)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1학년도에는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연구학교가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1개교, 초·중 병설 1개교 등 총 30개교를 실시하였고, 2003학년도에는 초·중·고 136개의 학교가 실시했으며, 2004학년도에는 1,023개교(전국 10%)가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학교를 실시하였다. 2005학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월1회(주5일수업제 우선시행학교는 월2회)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였고, 2006학년도에는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가 월2회의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차후 모든 학교가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교육 실시, 가족간의 유대 증진, 사회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목적을 둔 주5일수업제가 확대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주5일수업제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수업제는 공교육 위기 현상에 따른 새로운 학교교육 운영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교과교육 부적응,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의 이유로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공교육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자유학교, 대안학교, 탈학교론 등의 움직임이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 운동은 이미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 하면 실험 단계에 있거나 아직은 이념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것은 ①현재의 공교육에 대한 커다란 불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 ②부분적인 개혁이라기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바라고 있다는 점, ③내용적으로는 학생의 인권 및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밑바탕에 두고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정광희 외, 2000). 이렇게 볼 때 주5일수업제는 과도한 수업량과 입시준비로 스트레스가 과증되는 문제와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5일수업제에 거는 효과 중의 하나는 '과중한 학습량을 정선하여 감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학생과 교사의 질적, 양적 '여유'가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변화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강원도교육청, 2005). 주5일수업제는 학교교육의 새로

운 형태로 그리고 과도하게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인권 및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 운영 형태로서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주5일수업제는 학교교육 편중화 현상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 공동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파트너십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며, 따라서 아직 교육공동체 의식이 낮고, 사회 교육 기반 역시 미약하다(강원도교육청, 2005; 인천교육, 2002).

교육사가들은 20세기 교육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학교교육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다. 가정 및 지역사회의 교육력은 극심하게 저하되면서 그 모자라는 점을 학교에 전가해 왔다. 교육이 학교교육에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요즘 '교실붕괴'라는 용어에 볼 수 있듯이 학교도 그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입시로 인하여 '인성교육'의 장(場)의 역할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학생들은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식의 양을 배우기 위해 과도하게 학원에 다니면서 심신이나 삶에 여유를 잃고, 학교를 다녀도 기본생활습관이나 기본예절조차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우며, 폭넓고 다양한 인간적 교류를 통해 익혀야 할 사회성이나 봉사하는 정신도 갖지 못하고 있다(유한구, 1999). 이런 점에서 요즘의 교육사태는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교육력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광희(2001)도 학교, 가정, 사회에서 균형 있게 실현되는 교육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 속에서 그 균형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교육에 대한 모든 에너지는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기초 학력의 저하뿐만 아니라 생활 지도상의 문제까지도 모두 여전히 학교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 개인적으로 볼 때도 가정생활, 지역 사회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생활인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들을 익히지 못한 체 지력만 키워진 비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모든 것을 학교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의 기본 구조의 균형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도인(2005)도 주5일수업제가 가지는 교육적 의미의 입장에서 교육 ‘정상화의 일보’로 생각하여 추진하며, 주5일수업제는 「교육=학교」라는 과도한 의존관계에서 벗어나 학생교육을 바르게 평가하여 「주5일수업제=가정·사회 2일제」라는 관점에서 가정·학교·사회의 분담을 서로 확인하고 책임있는 교육시스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5일수업제는 학교 활동만이 아니라 학교 외 활동의 교육적 의미를 중시한다는 관점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휴업일 학습 등에 대해서 학교와 가정, 사회의 공동적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5일수업제는 ‘학교·가정·지역 사회’의 연계를 통한 공동교육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주5일수업제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최근 지식 기반사회, 평생학습 사회 개념이 대두되면서 ‘지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란 단순히 지식의 축적과 그 양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제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교육 개혁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요구에 따라 학생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각종 체험학습을 정규 교과나 교과 외 활동과 연계하는 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다양한 능력을 키우는 학습을 지향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기존의 일방적인 전달식 교수 방법이나 교실이라고 하는 제한된 학습 공간에서보다는 확대된 교육의 장(場) 속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보다 풍부하게 체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광희 외, 2000). 그러므로 주5일수



업제는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자기주도적 학습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5일수업제는 삶의 질 측면에서 요구되는 '여유'에서 필요하다. 최근 삶의 질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생의 인권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과중한 학습량과 학습시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과도한 학습량을 감축하는 것'과 그에 따른 '여유'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대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주5일수업제는 매우 유의미한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다. 교사 입장에서도 주5일수업제는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시간적 여유를 늘린다는 면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여유는 단지 쉬다는 의미보다는 학교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교재 및 교수 방법 연구, 연수 참여, 그 밖에 취미 생활이나 자기 성장의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5일수업제는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필요성은 주5일수업제가 현 교육에 대한 개혁적 요구 안에서 제기되는 것, 즉 '교육개혁'의 중심적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5일수업제는 주6일에서 주5일로 단축되는 단순한 숫자상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관은 물론 지식, 교과, 교수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을 요구하는 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 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다(정광희 외, 2001).

#### 나.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이론

월2회의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5일수업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교과활동과 체험활동을 관련짓거나, 체험활동을 할 때, 현행 교육과정 운영 체제에서는 '자기주도

적 학습’, ‘통합교육과정’, ‘특별활동 운영’ 세 가지 교육과정 이론 또는 운영 방식이 제기되는 바 교육인적자원부(2002), 정광희(2000), 유한구(1999)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

Knowels에 의하면 자기주도 학습은 ‘개별 학습자가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그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학습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선택, 실행하여 자신이 성취한 학습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데 개인이 주도권을 갖는 과정’이다(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2005). 무조건 교사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시범을 학생이 자기 주도로 따라해 보는 것으로서 교과내용의 내면화에 있어서 필수전제가 되는 것이며, 그 주체인 학생의 측면에서 다양한 경험을 종합하거나 통일된 인격을 갖추는 일에 있어서 근거가 된다.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자신감은 다른 영역의 학습에도 전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적 자산(資産)인 동시에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인성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덕목이 될 수 있다.

1996년 8월 21세기 새로운 일본 교육의 방향에 대한 문부대신의 자문을 받은 ‘중앙교육심의회’에서는 ‘21세기를 전망한 일본교육의 제고’라는 제목으로 답신을 제시했다. 내용은 여유 없는 학교 생활,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 저하 때문에 일본 학생들은 자립심이 없고 나약하고 사회성과 감성이 부족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되어 학생 비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며, 학생들을 합리적인 판단력과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인간으로 육성해야 하며 또한 2002년부터 주5일수업제의 전면적 실시를 염두에 두고 생활의 여유 속에서 ‘삶을 영

위하는 힘'(生きる力)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주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주5일수업제를 계기로 하여, 너무 많은 양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과거와는 다른 여유 속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하여 필수적인 교과내용을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모는 학생들의 기본생활습관형성 등과 같은 가정교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의식의 여유를 가지고, 사회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사회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여유를 가진 가운데, 학생들은 문제해결 능력의 배양과 풍부한 감성의 회복을 통하여 정보화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평생학습능력을 길러야 하겠다.

## 2) 통합교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 )

교육 과정의 구성에 있어서 종전에 전통적으로 각 학문 또는 지식의 체계에 따라 분화된 교과 중심으로 학습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교과간의 엄격한 울타리를 고려하지 않고 각 교과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한 대로 가져다 재구성하여 학생의 흥미 중심, 문제 중심, 특정 주제 중심으로 조성하는 교육과정을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지만 포괄하여 정의한다면 학습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교과의 구분을 탈피하고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제윤 외, 2002).

유한구(1999)에 의하면 주5일수업제의 도입은 수업일수나 수업시수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 전체의 구조조정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5일수업제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내용을 좀 더 여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내면화시키는 일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가르치는 내용을 조금 축소하되 약화되거나 부실하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는 교육과정 이수 시간의 감축과 내용의 엄선, 내용 연계나 통합(統合)

을 통하여 양적·질적으로 교육내용을 정선함으로써, 기초·기본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교육과정은 평일에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의 통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휴업일도 통합교육과정적 의의를 가진다. 교사나 학부모들이 휴업일에 시행할 교육 내용이나 활동을 구상할 때 휴업일을 하나의 ‘통합의 날’(integrated day)로 여길 필요가 있다. 이 날에는 여러 여건상 정규교과 수업시간을 통해서는 미처 다루어 보기 어려운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교과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교과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project)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모둠학습집단을 구성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주5일수업제의 도입과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에서 ‘종합적 학습시간’(総合的な學習の時間)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통합교육과정의 한 변형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 학습시간을 도입한 의도는 학생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나은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 및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과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 및 사물을 생각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문제해결 및 탐구활동에 주체적, 창조적으로 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결국 주5일수업제의 성공의 관건은 교과활동과 휴업일에 이루어지는 통합 교과 활동이 서로 어떤 관련을 맺게 되는가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휴업일의 통합 교과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으로서 교과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기초적 지식 및 기능이 명확히 습득될 필요가 있다. 교과학습이 기반이 되어 통합적 학습시간으로 발전되어 통합되는 측면과 통합적 학습시간에서 배운 것이 교과학습을 활성화시키는 두 측면이 상호보완적이고 상호호환적인 관계에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특별활동 운영(extra-curricula activity)

주5일수업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겠지만, 기존의 특별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별활동(이경환 외, 2002; 교육과정정책과, 2001)은 교과와의 상호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집단에 소속된 개인의 개성, 자율성, 창의성도 아울러 신장하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우리 나라의 특별 활동은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길러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별활동은 그동안 대개 학습 활동,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행사 활동 등과 같은 집단의 크기로 분류한 하위 영역만 보고도 특별 활동이 어떠한 목표 아래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는지를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색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한구(1999)는 주5일수업제의 한 가지 방식으로 기존의 특별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특별활동에 할애되어 일주일에 걸쳐 자투리로 널려 있는 시간들을 통합하여 휴업일에 몰아서 특별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의 교육과정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5일수업제는 기존의 특별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을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세 가지 독립적인 영역으로 여겨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가르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시공간을 통하여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교육목적을 지향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주5일수업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활동의 올바른 위치를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과가 학생에게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을 학생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며, 교과내면화 촉진을 위해 특별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관찰, 실습, 현장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또한 특별활동 시간에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교과내용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다. 주5일수업제의 교육적 의의

이도인(2003)은 주5일수업제 도입과정을 1단계(2004.3.1~2005.2.28) 연구·우선시행학교 확대실시→ 2단계(2005.3.1이후 2~3년 실시) 월1회 실시 → 3단계(월1회 실시 이후~전면 실시를 위한 여건 조성까지) 월2회 실시 → 제4단계(월2회 실시 이후) 완전 주5일수업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시기보다 빠른 단계의 진행을 보이고 있다. 즉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2004학년도부터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월1회 주5일수업제 우선시행학교, 2005학년도부터 토요일휴업일을 휴업일로 하는 전국적인 월1회의 주5일수업제, 그리고 올해 2006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월2회의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변화로 주5일수업제가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도 교육적 의의와 효과는 망각한 채 단순히 주5일만 수업하고 주2일은 휴식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후속작업으로만 인식하기도 한다. 이경환(2002), 정광희(2000) 등이 제시한 주5일수업제의 교육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 방법은 전통적인 것에 머무를 수 없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경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주5일수업제는 주2일을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가정과 사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게 되고,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고 경험하

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소질과 취미에 따른 활동 등을 통하여 교과 공부 때문에 소홀히 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의 행사 참여, 등산과 캠핑 등을 통한 자연 관찰, 운동, 악기 다루기 등 평소에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게 되므로 전인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더불어 주5일수업제도 시행되고 있는데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교육적 역할도 증가하게 된다. 휴업일에 지역 사회의 여러 시설을 이용하거나 여행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사회 교육 시설이 교육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교육 본래의 역할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주5일수업제 시행으로 학생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게 된다. 짜여진 교과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일을 계획하여 활동할 수 있다. 학생들의 삶도 개선될 것이며 학습에 있어서 정신적 피로와 중압감을 다소 완화시켜 휴식과 여유를 갖고 건전한 품성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 2. 국내의 주5일수업제 연구

주5일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에 주5일수업제 관련 연구 및 선행 연구학교의 연구 결과를 참고한다면 효율적인 주5일수업제의 방안 제시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가. 주5일수업제 관련 연구 내용 분석

최근 주5일수업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주5일수업제에 대한 연구물 중 본 연



구와 관련된 이도인(2000), 이윤미(2001), 이경환(2002), 박순경(2005) 등의 정책연구, 이미라(2002), 박상호(2003), 성현주(2003), 최홍식(2004)의 석사학위 논문, 이도인(2005)의 박사학위 논문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도인 등(2001)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방안」에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이 지금까지 주당 6일간으로 시행되어 오던 것을 주5일수업제로 바뀌게 되면서 주5일수업제의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주5일수업제의 의미와 장·단점 및 도입 시기와 형태를 묶어 공정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주5일수업제 실시를 위한 기본적 과제인 교육 과정과 학습 지도 방법 그리고 가정·학교·지역 사회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교육 과정의 개선을 위해 교육 과정 편성 절차, 준비과정, 시간 편성, 편성상의 유의점을 차례로 제시하고 있다.

이윤미 등(2001)의 「학교 주5일제 운영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는 2000년 이후 주5일수업제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해온 연구들에 대한 후속작업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 실태를 규명하고 그 구축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와 학교외 교육기관간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교육활동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야 하며, 사회적 인프라의 범위도 기존의 학교중심적 교육의 틀로부터 인식 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경환 등(2002)은 「주5일 수업대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에서 교육과정과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중 가정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체험학습 요소와 중복된 내용을 분석하여 수업시수 감축을 예상하였고, 시범 연구 학교의 운영 결과를 탐색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그리



고 주5일수업제의 각 단계에 따른 모형을 세워 이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전제 조건과 모형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변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인에 따라 단계적 적용에 대한 모형별 방안과 교육과정 지침을 마련하여 주5일수업제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박순경 등(2005)은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에서 주5일수업제를 월1회 실시 하고 있는 일반 학교와 월2회 실시 하고 있는 우선시행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의 부분적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주5일수업제 확대 실시에 대한 인식 및 요구가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점진적 확대 실시의 기초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는 과제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일수를 조정하는 선을 넘어서서 가정과 지역 사회의 교육적 역할 증대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미라(2002)는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에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립초등학교 9개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이들 학교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5일수업제에서의 학교 생활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응, 주5일수업제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반응과 기대치,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점,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박상호(2003)는 「주 5일 수업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지정 주5일수업제 시범·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여기에 참여했던 초등학교원들의 인식을 토대로 주5일수업제의 운영환경, 주5일수업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등을 분석하여 주5일수업제의 확대 실시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연구하였다.

성현주(2003)는 「주5일 수업제에 관한 중학교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연구」에서 경기 북부지역 2개의 시·군(의정부, 포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6일수업제에서의 학교 생활, 주5일수업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점,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주5일수업제 실시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경영의 방향과 바람직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행정가에게는 주5일수업제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최홍식(2004)은 「주5일수업제 도입 및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에서 주5일수업제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문헌들을 분석하여 교육적 관점에서 주5일수업제의 의의를 정립하고 이미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여,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 도입될 월1회 주5일수업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도인(2005)은 「주5일수업제의 성공적인 도입 방안 탐색」에서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하여 연구의 기초적 이론의 기반을 다지고, 국내·외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장방문과 전문·자원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5일수업제의 도입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5일수업제의 성공적인 도입 방안 즉 도입 시기와 형태, 학교 교육과정, 토요일·휴업일 활동,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국내 주5일수업제 선행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수업제 선행 사례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주5일수업제 사회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위에 제시된 정책 연구 및 석·박사 학위 논문은 주5일수업제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확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먼저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여 정착 단계에 이른 외국 사례 분석 및 주5일수업제 시범·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삼고 있다.

셋째, 주6일에 시행되던 학교 교육이 주5일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므로 교육 내용 및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 주5일수업제에 적절한 수업일수 및 내용, 방법 등 교육과정의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선행 연구들은 가정·학교·지역 사회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 실시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주5일수업제의 저변 확대를 위해 근거가 되는 바 사회적 기반 실태를 규명하고, 인프라 구축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나.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의 연구 내용 분석

지금까지 추진된 국내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는 많으나 그 중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육과정연구학교를 시행했던 몇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의 연구 주제 및 내용은 <표 II-1> 주요 주5일수업제 국내 연구학교 사례와 같다.

<표 II-1> 주요 주5일수업제 국내 연구학교 사례

연구 학교명	연구 기간	연구 주제	연구 내용
전남 사창초등학교	1996~1997	○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주5일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주5일수업제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 토요일휴업일 실시를 위한 학교의 여건 조성 ○ 교육내용의 재구성을 통한 현장체험학습의 날 운영
경남 마산해운초등학교	1996~1997	○ 주5일제 수업 대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주5일수업제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 특별활동 프로그램 구안 ○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지원 체제 확립
경기 왕곡초등학교	2001~2002	○ 주5일 수업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 주5일 수업을 위한 기반 조성 ○ 체험학습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 운영
제주 한림여자중학교	2002~2003	○ 주5일수업제를 위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학생중심의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 개발·적용 ○ 주5일수업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인천 안남중학교	2003~2004	○ 주5일수업제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주5일수업제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적용 ○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구안·적용
대전 동대전고등학교	2003~2004	○ 주5일수업제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주5일수업제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 토요일휴업일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구안·적용 ○ 주5일수업제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의 연구내용 분석은 각 학교의 결론 및 제언에 언급한 내용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사회 기반 조성 등의 사회적 인프라 측면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전남 사창초등학교는 월1회 토요일휴업일을 운영했고, 주5일수업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주5일수업제의 정착을 위해서 학습량의 축소와 교육

내용 및 수준에 따른 수업시수 감축의 필요성 더 나아가 다양한 체험활동 및 바람직한 여가활동이 가능하며, 토요일업일의 지도 역할은 최종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마산 해운초등학교는 연간 16일(월2회)의 학교 휴업일을 편성하여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였다. 교육과정 내용 감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 이수에 대한 지역 및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요구하였다. 학습 주제 및 장소를 학습자가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 수업인정제도는 주5일수업제의 실시와 따른 집단간 공동 이해에 효과적이며, 자유 탐구의 날 운영으로 자기 학습 능력이 신장되었고, 주5일수업제 시행을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합의와 조정에 따른 총체적인 휴일의 학생 활동 지원 체제 구축을 요구하였다.

경기 왕곡초등학교는 연간 23일의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였고, 체험학습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의 재조정 및 체험학습을 위한 학교예산 확보의 노력을 요구했다. 그리고 효율적인 주5일수업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휴업일 체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을 요구하였다.

제주 한림여자중학교는 월2회의 토요일업일을 운영하였고, 학교 행사 정선, 수업일수 감축 등 제7차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였다.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고, 다양한 활동은 지금까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던 교육의 역할을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후속 연구학교에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휴업일 활동에 대해 수업시수로 산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 안남중학교는 월2회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였고,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체험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주제별 교과통합 학습', 온라인상의 학습 프로그램인 '사이버 안남'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및 수업시수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인 '지역사회체험학습',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였다. 더 나아가 관련 기관이나 지역사회,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구했다.

대전 동대전고등학교는 월2회의 주5일수업제를 실시했고, 토요일학습일은 교과시간 2시간과 특별활동 2시간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학교시설의 개방과 더불어 다양한 학교활동 프로그램의 개발·활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는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의 조정을 요구하였다.

지금까지 주요 주5일수업제 국내 연구학교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연구학교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연간 최저 시수 준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연간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학교 행사를 엄선하여 운영하고, 토요일 시간표에 해당되는 시수를 평일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학습 부담을 주므로 시간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했다.

셋째, 연간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서 수업일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운영은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제시했다.

넷째, 주5일수업제 운영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사회의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주5일수업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활용 방안 및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요구하였다.

### 3. 외국의 주5일수업제 연구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를 위해 주5일수업제를 먼저 시작하여 정착된 단계에 이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배경과 성과,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인천교육, 2002; 이윤미 외, 2001; 유한구 외, 1999)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에 적절한 주5일수업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 가. 프랑스

프랑스는 1882년 공교육이 도입된 이래 주5일수업제를 실시해 온 나라이다. 전통 카톨릭 농경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학교 조직은 교회 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부모가 아동의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일 이외에 목요일 수업을 금하는 법률이 정해지는 등 목요일을 휴업으로 하는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1969년 토요일의 오후수업이 폐지되고, 1972년부터는 신학기 이후 학습 리듬에 따라 한 주의 가운데를 휴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목요일 휴업일을 수요일로 변경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요일 반일의 수업을 수요일 오전 또는 오후에 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프랑스의 수업 유형은 <표 II-2>와 같이 우리의 특별활동이 강조된 주5일수업제의 유형으로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연주 수업을 받는 등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표 II-2> 프랑스의 수업 유형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오후	수업	수업		수업	수업	

학습 주기는 아동의 연령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고 주중의 일과를 잘 안배하여

일과 학습 시간을 경감하고 여름 방학 일수를 줄이는 대신에 작은 방학의 일수를 늘리는 것이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길임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 교내에서의 일과뿐만 아니라 방과후의 여가 시간까지 포함하여 아동의 전체 일과의 조화로운 조직에 관한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수요일의 학습활동을 주관하는 것은 주로 학부모이며,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의 경우에는 일일교사가 학생들을 담당하는 봉사를 해 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4년에는 교사, 학부모, 지역 자치, 민간 단체 사이의 교육 협력 체제가 처음으로 구축되어 교내의 학습 및 여가 활동이 아동들의 방과후 활동으로 다양하게 조직되었다. 1988년에는 학교와 지방 자치 및 민간 단체의 봉사와 협력을 바탕으로 아동과 학생들에게 학교 수업 이외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 시간조직계약'이 도입되었다. 그러다가 1991년부터는 연간 의무 교육 시수만 존중하면 기타 일과나 주당 시간표를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율권이 각 학교에 주어지게 되어 다양한 양상이 일어나며 1994년부터는 토요일 오전수업을 수요일로 옮겨 주말을 완전히 비우는 방식인 주4일수업제가 제안되어, 지역차원에서 계속 실험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학교시간조직(ARS)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리듬조직(ARVEJ)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전한하여 청소년 스포츠부, 교육부, 문화부, 사회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대형 국가정책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아무런 사회적인 방책도 없이 거리로 내몰아서 결국에는 거리를 배회하는 불량 청소년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학교시간조직을 학교 개방과 연관시켜 초등학교를 성인들의 평생 교육을 위해, 중등학교를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보충 수업을 시키거나 평소 누리지 못한 여러 가지 사회, 문화 및 스포츠 활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학 기간 동안 개방하고 있다. 여러 학교의 학생들 중 지원자를 받아 지역별로 동아리를 만들어 한 학교에 모아놓고 수업과 활동을 시키는 것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나. 독일

독일에서의 주5일수업제에 대한 논의는 주휴2일제가 보급된 195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1976년부터 각 주에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였다. 독일에서 주5일수업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찬·반 양론에 대하여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시행에 대비한 다양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매월 1~2회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제도가 15년 정도 시행되었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해지고 교육적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었다.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가 시작된 1992년부터는 모든 학교가 주5일수업제 도입을 학교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제정되었고, 1993년 가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주5일수업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주5일수업제 도입에 앞서 교육과정의 개정 및 수업 시수를 단축하였고, 추가적인 교실 확보, 매점 설치, 휴식 시간 등의 조정을 통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등 사전 준비에 충실을 기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의 사회교육 담당자들 사이에 활발한 연계가 이루어졌다.

독일의 주5일수업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 학교의 자율 선택에 맡겨짐에 따라 각 학교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휴업일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족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철저히 학부모의 책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 각 주는 폭 넓은 지방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도 원칙적으로 각 주의 소관사항이므로 주5일수업제의 도입 과정, 운영형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에서 주5일수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인프라 논의에 대해서 헤르만슈탈 초등학교 사례를 보면 학부모의 주5일 근무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토요일에 학생들이 자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과도기적인 형태로 각급학교에서 토요 특별교실을 운영했고, 학부모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이다.

#### 다. 일본

일본에서는 외교정책상 연간 총 노동시간 단축(1800시간)의 필요, 경제 발전의 한편에서 ‘과로사’로 상징되는 과잉노동에 따른 노동과 여가 문제의 대두, 그리고 내수 주도형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등의 요인으로 경제계에서 주휴 2일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휴 2일제가 보급·확대되면서 교육외적 요인인 사회의 변화에 대한 학교교육의 대응 방식의 문제로서 주5일수업제 도입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주5일수업제를 추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 추진되어온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근대화를 추진해 온 일본에서의 학교교육은 서구문화를 중심으로 체계화된 지식과 기능의 습득에 초점을 두어, 그 결과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치는 확보했으나 경쟁위주의 교육체제는 많은 교육적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혹은 그동안의 교육이 학교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가정과 지역사회 교육력의 균형이 깨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학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지역사회도 교육의 장이 되며, 아이들이 그 생활의 영역에서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을 기를 수 있고 동시에 풍부한 감정과 사회성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개혁의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하여 1986년 4월 임시교육심의회 제2차 답신을 시작으로 주5일수업제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는데 “주휴2일제 사회로 이행해 가는 사회의 추세를 고려하면서 아이들 입장을 중심으로 가정·학교·지역의 역할을 새로이 재검토하는 시각에

서 주5일수업제로의 이행에 관해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후 1987년 12월에 교육과정심의회 답신에서는 “주5일수업제를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도입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실험학교 등을 설치하여 조사연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1992년 2월 「사회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에서 월1회 실시를 제안하게 되었다. 1994년 월 2회를 실시를 제안하여 1995년부터 월 2회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6년 7월 중앙교육심의회 1차 답신 「21세기를 전망한 일본교육의 모습에 관해」에서 완전 주5일수업제 도입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1998년 7월 교육과정 기준개정, 1998년부터 문제점을 보완하여 연간 70시간과 학습 내용 30%를 감축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기준도 개정하게 되었으며, 2002년부터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일본은 자연, 사회,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조적, 자율적 태도 및 미래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처 능력을 육성하고, 비교적 많은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강화시켜주며, 교사들에게는 주2일의 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교사로서의 자질, 능력, 태도를 갖추기 위한 자기연수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라. 중국

중국에서 주5일수업제에 대한 논의는 1990년 초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더불어 이에 적합한 교육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개혁개방정책 이후부터 주5일수업제의 실시 목적을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학교, 가정, 사회 교육의 개선으로 소질교육(우리나라의 인성교육에 해당됨)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두었다.

중국에서는 1994년 격주 주5일수업제를 실시했고, 이듬해인 1995년 9월 학기부

터 전국적으로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주5일수업제의 급속한 진행은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교직원의 근무시간 문제와 연계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교직원의 근무조건만을 해소하는 데 비중을 두어 일본과 같이 사전 준비와 조정기간을 가지지 못한 채 전격적으로 시행을 서두름에 따라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면 ①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주5일수업제를 급속히 도입하게 되었으나 사회기반이 매우 부족하고, 그 교육내용 또한 다양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②학생들의 학업부담을 덜어주고 여가활동을 적극 조장하여 가정과 학교를 안정시키기 위해 소질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사회구성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며 ③시장경제 이후 학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과외활동과 사교육비 급증 등의 심화된 교육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④가정, 학교, 정부의 경제적 여건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서 중국 교육계는 주5일수업제 실시 이후에 나타난 각종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기반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설은 유지하되, 정치성을 축약시키고 과외활동을 지원해 보다 개선된 주5일수업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궁과 인터넷 지역 네트워크 등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기반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전국 과외 문화체육활동 공정’을 발표(2001.5.28)하였는데, 향후 10년 동안 진행될 이 공정은 소질교육과 주5일수업제의 취지를 살려 보다 심층적인 사회기반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의 주5일수업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나라는 주5일수업제에 대해 단계적·점진적 도입을 선택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를 위해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월1회→월2회→전면 시행 등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실험학교 혹은 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있다.

둘째,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노동이나 경제 논리 보다 교육적 관점, 특히 학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이익과 교육의 효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율적인 운영을 기본으로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 학교의 자율에 맡겨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여건에 따라 도입 시기 또는 방법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고 있다.

넷째, 주5일수업제는 가정·학교·지역 사회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주5일수업제의 도입에 앞서 사회 교육 기반 확충을 중요시 여겨 다양한 인프라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4.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유한구(1999), 교육인적자원부(2001)는 주5일수업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더불어 그에 대한 부담을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져야하며, 이를 위해서 각각 시설 확보, 프로그램 개발 노력뿐 아니라 삼자의 긴밀한 연계 유지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학교 교육과정 편제의 개정 및 재구성

‘편제(이경환 외, 2002)’란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의 구성 영역에 따른 교과 및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의 구체적 과목 명칭과 시간 배당 기준,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구분, 이수 과정의 표시,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한 일련의 조직 배열을 의미한다. 앞으로 주5일수업제를 확대시행하면 우선 국가수준 또는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편제에 ‘휴업일 활동’에 관한 항목이 명기되어야 한다.

주5일수업제는 필연적으로 통합교육과정을 수반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통합교과적 관점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과정은 휴업일이 아닌 평일에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의 통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휴업일도 통합교육과정적 의미를 가진다. 교사나 학부모들이 휴업일에 시행할 교육 내용이나 활동을 구상할 때 휴업일을 하나의 ‘통합의 날’(integrated day)로 여겨 여건상 정규교과 수업시간을 통해서는 다루기 어려운 ‘간학문적’ 교과 내용을 제시하거나, 여러 교과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모둠 학습 집단을 구성해 줄 수 있다.

## 나.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교의 교육 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 수준 교육 과정과 시·도 교육감이 고시한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각 학교가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때 ‘편성’이라 함은 교육내용을 국가 및 지역의 기준과 그 지역의 특성, 그 학교의 실정과 교육 여건, 학생의 체반 실태 등에 알맞게 구성하고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편성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구성·계획→운영·실행→평가→재편성의 순서와 내용을 포함한다(이경환 외, 2002).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은 장기간 국가에 의하여 규제되어 왔으나 제7차 교육과정은 ‘연간’ 총 수업 시수를 제시하여 계절의 변화, 교과 및 활동의 특수성,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교육과정 시간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주5일수업제 운영을 보다 용이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주5일수업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결정 권한을 학교와 교사,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폭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 다. 주5일수업제에 걸맞은 수업관 및 학력관의 변화

주5일수업제 시행을 무조건 교육 분량이나 시간을 축소하는 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의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과 교육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주5일수업제 수업시간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 운영 계획이 요구된다. 그러나 학교교육 또는 교육과정을 축소·조정하더라도 학생의 교육 및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의 궁극적인 과제는 주5일수업제 시행에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의 전향적 시각도 요구된다. 예컨대, 학교행사 참여도 수업의 일환으로 여겨 수업시수에 포함시키는 방안, 학습장소의 융통성을 위한 재택학습, 또는 그밖에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학습한 것도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수업인정제의 운영,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에서 운영되는 특별활동도 수업의 일환으로 인정해 주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 라. 학교행사의 축소 및 조정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연간 수업시수 충족에 부담을

주어왔던 연간 학교 행사를 시간이나 내용면에서 보완해야 한다.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면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예전처럼 많은 학교 행사를 가지기가 어렵다. 또한 학생들의 여가 시간이 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이 점차로 강화되면, 기존에 학교에서 이루어져오던 행사들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정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화성(인천교육, 2002)에 의하면 행사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① 행사 활동 중 교육과정 연관성이 깊은 활동을 추출하여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②관행적으로 운영하였던 불필요한 행사를 삭제한다 ③현재 행사 활동의 시수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꼭 필요한 시수만큼 축소하거나 일부 시간(행사준비, 평가, 심화 활동 등)을 휴업일 활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④학교 주도 행사 활동을 점차 휴업일의 가정·사회 주도 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마. 휴업일 활동을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방안 연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 수업운영방법 등). 이화성은 휴업일 활동 중 어떤 것을 수업시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때 교사와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교육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재훈은 앞으로 통신대학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격 재택수업(GVA)을 도입하여 수업일수로 인정해 주는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다(인천교육, 2002).



#### 바.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지원 체제 확립

주5일수업제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의 노력만으로는 시행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지원체제 구축,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학교·가정·지역사회 사이의 연계 강화 등이 요구된다.

주5일수업제 시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력 회복에 있는 만큼, 학교와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할 여러 가지 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이외의 교육 즉 가정교육, 지역사회 교육, 학교교육의 역할 부담 및 관계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광희(부산교육청, 2005)는 휴업일의 보다 활발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지역단위로 폭을 넓혀 생각하는 사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간 혹은 학교급간 연계, 대학과의 연계, 지역 시설이나 단체와의 연계 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 사. 학교 시설 및 제반 여건의 확충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활동 중심의 통합 교육과정 운영 혹은 토요일휴업일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활동을 위해 학교 시설 개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주5일수업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유한구(1999)에 의하면 학교 안에서 취미활동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장소가 있어야 한다. 토요일휴업일에 학생들이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운동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구를 갖춘 여러 보조 운동장이나 체육관도 필요하며, 독서활동을 원한다면 여러 열람실과 폭넓고 다양한 도서들을 구비한 도서관 등이 있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도인(부산교육, 2005)은 주5일수업제 연구학교 운영 분석을 통해 학교 시설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학교의 시설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시설을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일정 부분 학교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노력, 인근학교 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공유를 통해 교육의 인프라를 확대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 아. 주5일수업제에 대한 평가 방안

주5일수업제를 위해 먼저 평가방식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교사 주도형보다 능력 존중 학력관으로의 전환이 촉진되고 평가에 있어서도 학습의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학습지도의 질적 전환을 위해 개개인 학생의 내발(內發)적인 학습의욕을 중시하고 개개인 학생의 기호나 특성을 살리는 지도를 중시하고 있다(이도인, 1996). 더 나아가 지필시험(紙筆試驗)보다는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소그룹 프로젝트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평가 상황에서 학생의 통합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평가’의 도입 즉 주5일수업제 제도 또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평가 항목에는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학교가 주5일수업제를 시행할 시설 및 설비는 잘 갖추고 있는지, 학교에서 주5일수업제에 관한 홍보를 잘 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휴업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주5일수업제에 대해 가정에서의 협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교사, 가정,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각각 또는 전체의 연계가 서로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의 평가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배포는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2004학년도 각급 학교 일람표 중 '2004. 4. 1. 현재 중학교 학생 현황'의 학생 비율을 참고하였다. 즉 제주시 남녀공학 1개교, 남·여학교 각 1개교, 북제주군 남·여학교 각 1개교, 서귀포시 남·여학교 각 1개교, 남제주군 남녀공학 2개교를 무선 표집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학생은 표집학교 1, 2, 3학년 한 학급과 이 학생들의 학부모, 그리고 표집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2006년 3월 16일 배포하여 24일까지 회수된 교사 300부 중 242부(회수율 80.67%), 학생 787부 중 767부(회수율 97.46%) 그리고 학부모 787부 중 625부(회수율 79.42%) 총 1,874부 중 1,634부(총회수율 87.19 %) 회수된 설문지를 유효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 자료로 삼았으며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III-1> 교사의 일반적 특성

배경 변인	집단	사례수	백분비(%)
성별	남자	79	32.6
	여자	163	67.4
직위	평교사	183	75.6
	보직교사	59	24.4
교직 경력	1~10년 미만	29	12.0
	10년 이상~20년 미만	108	44.6
	20년 이상	105	43.4
소재 지역	제주시	116	47.9
	서귀포시	50	20.7
	북제주군	25	10.3
	남제주군	51	21.1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10	4.1
	12학급 이상~30학급 미만	151	62.4
	30학급 이상	81	33.5
계		242	100



<표 III-2> 학생의 일반적 특성

배경 변인	집단	사례수	백분비(%)
성별	남자	383	49.9
	여자	384	50.1
학년	1학년	256	33.4
	2학년	258	33.6
	3학년	253	33.0
소재 지역	제주시	345	45.0
	서귀포시	182	23.7
	북제주군	123	16.0
	남제주군	117	15.3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129	16.8
	12학급 이상~30학급 미만	416	54.2
	30학급 이상	222	28.9
계		767	100

<표 III-3> 학부모의 일반적 특성

배경 변인	집단	사례수	백분비(%)
성별	남자	154	24.7
	여자	471	75.4
학년	1학년	216	34.6
	2학년	204	32.6
	3학년	205	32.8
소재 지역	제주시	299	47.8
	서귀포시	133	21.3
	북제주군	98	15.7
	남제주군	95	15.2
계		625	100

## 2. 연구 도구

주5일수업제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자와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그리고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관련문항으로 영역을 나누고 하위항목을 각 영역별 6~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역별 설문 내용과 문항 구성 내용은 다음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설문지 문항 구성표

영역	문항번호			내 용	교사	학생	학부모
	교사	학생	학부모				
I	1	1	1	주5일수업제 만족도	○	○	○
	2	2	2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유익한 점	○	○	○

	3	3	3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나타난 부정적 영향	○	○	○
	4	4	4	주5일수업제가 학력에 미친 영향	○	○	○
	5	5	5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느낀 어려움	○	○	○
	6	.	6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교사/학부모가 느낀 어려움	○	×	○
	7	6	7	토요휴업일 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계획과 실천	○	○	○
	8	7	8	작년 토요휴업일에 주로한 일	○	○	○
	9	8	9	올해 토요휴업일에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활동	○	○	○
	.	9	.	올해 토요휴업일의 학교 등교 계획	×	○	×
	.	10	.	올해 귀교의 토요휴업일 운영 형태	×	○	×
	10	11	10	원하는 주5일수업제 운영 형태	○	○	○
	11	.	11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	×	○
	12	12	12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시행연도	○	○	○
	13	.	13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	○	×	○
	14	.	.	부족한 수업일수(수업시수) 확보 방안	○	×	×
	15	.	.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수업일수	○	×	×
II	16	.	14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	×	○
	17	.	.	교육과정 개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	○	×	×
	18	13	15	교사/학생의 수업부담 여부	○	○	○
	19	14	16	수업부담 해소 방안	○	○	○
	20	15	17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	○	○
	21	16	18	주5일수업제로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여부	○	○	○
III	22	17	19	주5일수업제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교육 시설	○	○	○
	23	.	20	토요휴업일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	○	×	○
	24	18	21	개방하기 적합한 학교 시설	○	○	○
	25	19	22	토요휴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	○	○	○

###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하여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주제를 구상하여 설정하였고,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논문계획서에 따라 지도교수의 조언을 받아 자료를 분석·정리하였고,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2006년 3월 선행연구와 본인이 자체 제작한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자와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설문지를 제작하여 배포·회수하였다. 2006년 3월부터 4월 초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1차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수정을 거쳐 4월 말까지 보완하였다.

### 4.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각각의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 작업을 거쳐 SPS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경변인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주5일수업제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그 차이를 밝히기 위해 교차분석( $\chi^2$ )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

#### 가. 주5일수업제 만족도

2005년 전국적으로 월1회(우선시행학교는 월2회) 실시한 주5일수업제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주5일수업제 만족도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매우 만족	27 (11.2)	390 (51.0)	103 (16.5)	520 (31.9)
대체로 만족	147 (60.7)	223 (29.2)	223 (35.7)	593 (36.4)
보통	52 (21.5)	135 (17.6)	234 (37.5)	421 (25.8)
불만족	14 (5.8)	14 (1.8)	42 (6.7)	70 (4.3)
매우 불만족	2 (.8)	3 (.4)	33 (3.5)	38 (1.7)
전체	242 (100)	765 (100)	635 (100)	1642 (100)
$\chi^2(df)$	313.778(8)			.000***

\*\*\*  $p < .001$

주5일수업제의 만족도에 대하여 응답자 전체의 68.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6%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만족도를 보면 학생의 80.2%, 교사의 71.9%, 학부모의 52.2%로 나타나 집단별 다소의 차이가 있다. 주5일수업제의 만족도를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65 (27.0)	158 (20.7)	182 (30.1)	405 (25.2)
다양한 체험활동	47 (19.5)	28 (3.7)	35 (5.8)	110 (6.8)
여유와 휴식	101 (41.9)	389 (50.9)	258 (42.6)	748 (46.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13 (5.4)	90 (11.8)	87 (14.4)	190 (11.8)
취미·소질 계발	15 (6.2)	99 (13.0)	43 (7.1)	157 (9.8)
전체	241 (100)	764 (100)	605 (100)	1610 (100)
$\chi^2(df)$	114.545(8)			.000***

\*\*\*  $p < .001$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하여 응답자 전체의 46.5%, 25.2%, 11.8%, 9.8%, 6.8%의 순으로 “여유와 휴식의 기회가 많아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커졌다”, “취미활동과 소질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 “견학, 문화행사, 여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었다”로 응답하였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여유와 휴식의 기회가 많아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나타난 부정적 영향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나타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학생들에게 나타난 부정적 영향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학습량 및 학력 저하	7 (2.9)	26 (3.4)	75 (12.1)	108 (6.6)
시간 활용 및 과제해 결 능력 부족	111 (45.9)	61 (8.0)	176 (28.3)	348 (21.4)
생활지도상의 문제	19 (7.9)	169 (22.1)	32 (5.2)	220 (13.5)
정신적 부담 증가	29 (12.0)	54 (7.1)	31 (5.0)	114 (7.0)
부정적 영향 없음	76 (31.4)	455 (59.5)	307 (49.4)	838 (51.5)
전체	242 (100)	765 (100)	621 (100)	1628 (100)
$\chi^2(df)$	311.848(8)			.000***

\*\*\*  $p < .001$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나타났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응답자 전체의 51.5%가 “부정적 영향이 별로 없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21.4%가 “스스로 시간을 활용하거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13.5%가 “학생들의 비행 증가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7.0%가 “학원수강, 과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 부담이 더 증가되었다”, 6.6%가 “학생들의 학습량이 줄어들고 학력이 저하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45.9%가 “시간 활용 및 과제해결 능력 부족”을 가장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영향이 많지는 않더라도 학생들에게 나타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나타났던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 주5일수업제가 학력에 미친 영향

주5일수업제가 학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주5일수업제가 학력에 미친 영향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학력 향상	11 (4.5)	127 (16.6)	44 (7.1)	182 (11.2)
변화 없음	223 (92.1)	616 (80.6)	540 (86.5)	1379 (84.6)
학력 저하	8 (3.3)	21 (2.7)	40 (6.4)	69 (4.2)
전체	242 (100)	764 (100)	624 (100)	1630 (100)
$\chi^2(df)$	54.125(4) .000***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p < .001$

주5일수업제가 학생들의 학력(학업 성적)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응답자 전체의 84.6%가 학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하여 학력이 주5일수업제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면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대다수의 생각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가 운영될 경우는 학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토요일 휴업일로 인한 수업결손이 없도록 주중에 실시하거나, 방학기간 단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결손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학습부담 등의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5일수업제가 학생들의 학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 토요일업일에 학생들이 느낀 어려움

토요일업일에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토요일업일에 학생들이 느낀 어려움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학부모의 지도 여건 부족	110 (46.2)	178 (23.6)	244 (40.1)	532 (33.3)
사회여건 미흡	98 (41.2)	270 (35.9)	151 (24.8)	519 (32.4)
스스로의 학습 과제 해결	8 (3.4)	254 (33.7)	137 (22.5)	399 (24.9)
경제적 부담	18 (7.6)	51 (6.8)	77 (12.6)	146 (9.1)
안전문제 미흡	4 (1.7)	.	.	4 (.3)
전체	238 (100)	753 (100)	609 (100)	1600 (100)
$\chi^2(df)$	166.344(8)			.000***

\*\*\*  $p < .001$

토요일업일에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에 대하여 응답자 전체의 33.3%가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32.4%가 “사회여건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다”, 24.9%가 “학습 도우미 없이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9.1%가 “체험학습 활동 시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0.3%가 “체험학습 활동 시에 따르는 안전문제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회여건 미흡”, “스스로의 학습 과제 해결”, “학부모의 지도 여건” 순으로 각각 35.9%, 33.7%, 23.6%로 응답하였다. 특히 교사와 학부모는 학부모가 지도할 여건이 안된다는 점에 46.2%, 40.1%로 나타났으나, 학생들은 23.6%만 응답하여 중학생은 초등학생에 비해 학부모 의존도가 비교적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토요일업일에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교사, 학부모가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교사, 학부모가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교사, 학부모가 느낀 어려움

	집단		전체
	교사	학부모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	59 (24.4)	141 (22.7)	200 (23.1)
평일의 과도한 학습량 지도	75 (31.0)	40 (6.4)	115 (13.3)
휴업일 사전·사후 지도	29 (12.0)	87 (14.0)	116 (13.4)
생활지도 및 안전지도	11 (4.5)	86 (13.8)	97 (11.2)
어려움 없음	68 (28.1)	268 (43.1)	336 (38.9)
전체	242 (100)	622 (100)	864 (100)
$\chi^2(df)$	103.129(4)		.000***

\*\*\*  $p < .001$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교사, 학부모가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전체 38.9%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교사는 31.0%가 “평일의 과도한 학습량을 지도”하는 데서, 학부모는 22.7%가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효율적인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일의 과도한 학습량을 조절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교사, 학부모가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사. 토요일업일 활동의 바람직한 계획과 실천

토요일업일 활동의 바람직한 계획과 실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IV-7>과 같다.

<표 IV-7> 토요일업일 활동의 바람직한 계획과 실천 (%)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학생 스스로	78 (32.2)	513 (67.1)	294 (47.2)	885 (54.3)
부모님의 계획	7 (2.9)	13 (1.7)	14 (2.2)	34 (2.1)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145 (59.9)	140 (18.3)	183 (29.4)	468 (28.7)
선생님의 도움	9 (3.7)	43 (5.6)	108 (17.3)	160 (9.8)
계획 필요없음	3 (1.2)	56 (7.3)	24 (3.9)	83 (5.1)
전체	242 (100)	765 (100)	623 (100)	1630 (100)
$\chi^2(df)$	238.035(8)			.000***

\*\*\*  $p < .001$

토요일업일 활동의 바람직한 계획과 실천에 대하여 응답자 전체의 54.3%가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28.7%가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 9.8%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계획하여 실천”하는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67.1%, 학부모의 47.2%가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나타난 반면 교사는 59.9%가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토요일업일 활동의 바람직한 계획과 실천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 작년(2005학년도) 토요일업일에 주로 한 일

작년 토요일업일에 주로 한 일에 대하여 분석결과는 <표 IV-8-1>, <표 IV-8-2>, <표 IV-8-3>과 같다.

<표 IV-8-1> 작년 토요일업일에 주로 한 일(교사)

		출근	교재연구	자기계발	가족	휴식	(%) $\chi^2(df)$ <i>p</i>
성별	남	7(8.6)	16(19.8)	27(33.3)	21(25.9)	10(12.3)	17.508(4)
	여	3(1.9)	17(10.6)	46(28.6)	80(49.7)	15(9.3)	.002**
직위	평교사	7(3.8)	26(14.2)	46(25.1)	85(46.4)	19(10.4)	10.639(4)
	보직교사	3(5.1)	7(11.9)	27(45.8)	16(27.1)	6(10.2)	.031*
교직 경력	10	.	8(25.8)	7(22.6)	9(29.0)	7(22.6)	17.694(8)
	10~20미만	4(3.8)	12(11.3)	28(26.4)	54(50.9)	8(7.5)	.024*
	20이상	6(5.7)	13(12.4)	38(36.2)	38(36.2)	10(9.5)	
소재 지역	제주시	5(4.3)	13(11.2)	41(35.3)	48(41.4)	9(7.8)	
	서귀포시	4(8.0)	7(14.0)	10(20.0)	20(40.0)	9(18.0)	11.495(12)
	북제주군	.	4(16.0)	7(28.0)	11(44.0)	3(12.0)	.487
	남제주군	1(2.0)	9(17.6)	15(29.4)	22(43.1)	4(7.8)	
전체		10(4.1)	33(13.6)	73(30.2)	101(41.7)	25(10.3)	242(100)

\* $p < .05$     \*\* $p < .01$

작년 토요일업일에 주로 한 일에 대하여 교사는 41.7%가 “교사도 가정이면 학부모이므로 가족과 함께 보냈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30.2%, 13.6%, 10.3%, 4.1% 순으로 각각 “장소에 관계없이 자기계발활동을 하였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재연구를 하였다”, “가정에서 휴식을 하면서 지냈다”, “주로 학교에 출근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다”고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교사가 “자기계발”, 여교사가 “가족과 함께”로 나타나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직위로는 평교사가 “가족과 함께”, 보직교

사가 “자기계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교직 경력으로별로는 경력에 관계없이 “가족과 함께 하였다”고 응답하여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8-2> 작년 토요일업일에 주로 한 일(학생)

		등교	체험	학습	취미·소질	휴식	$\chi^2(df)$
							(%)
							$p$
성별	남	9(2.4)	51(13.4)	55(14.5)	121(31.8)	144(37.9)	36.475(4)
	여	7(1.8)	48(12.5)	53(13.8)	59(15.4)	217(56.5)	.000***
학년	1학년	5(2.0)	48(18.9)	19(7.5)	60(23.6)	122(48.0)	25.684(8)
	2학년	6(2.3)	27(10.5)	47(18.2)	67(26.0)	111(43.0)	.001***
	3학년	5(2.0)	24(9.5)	42(16.7)	53(21.0)	128(50.8)	
소재 지역	제주시	6(1.7)	56(16.3)	66(19.2)	71(20.6)	145(42.2)	
	서귀포시	5(2.7)	16(8.8)	19(10.4)	56(30.8)	86(47.3)	31.391(12)
	북제주군	2(1.6)	17(13.9)	15(12.3)	25(20.5)	63(51.6)	.002**
	남제주군	3(2.6)	10(8.6)	8(6.9)	28(24.1)	67(57.8)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4(3.1)	17(13.3)	13(10.2)	26(20.3)	68(53.1)	
	12~30학급 미만	10(2.4)	49(11.8)	49(11.8)	105(25.3)	202(48.7)	17.5648(8)
	30학급 이상	2(0.9)	33(14.9)	46(20.8)	49(22.2)	91(41.2)	.025*
전체		16(2.1)	99(13.0)	108(14.1)	180(23.6)	361(47.3)	76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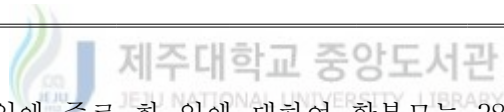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작년 토요일업일에 주로 한 일에 대하여 학생은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7.3%가 “가정에서의 편안한 휴식”으로 나타났고, 23.6%, 14.1%, 13.0% 순으로 “취미·소질 계발 활동”, “모자란 학습 보충”, “가족 혹은 친구들과 체험 학습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한 학생은 2.1%로 극소수임을 알 수 있다. 성별, 학년별로  $p < .001$  수준에서, 소재지역별로는  $p < .01$  수준에서, 학교규모별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8-3> 작년 토요일업일에 주로 한 일(학부모)

		(%)					$\chi^2(df)$
		직업관련	체험	직장	자기계발	휴식	$p$
성별	남	24(15.9)	12(7.9)	57(37.7)	12(7.9)	46(30.5)	9.865(4) .43
	여	85(18.1)	21(4.5)	180(38.3)	15(3.2)	169(36.0)	
자녀 학년	1학년	35(16.4)	16(7.5)	78(36.4)	7(3.3)	78(36.4)	10.594(8) .226
	2학년	41(20.2)	8(3.9)	86(42.4)	11(5.4)	57(28.1)	
	3학년	33(16.2)	9(4.4)	73(35.8)	9(4.4)	80(39.2)	
소재 지역	제주시	39(13.1)	16(5.4)	127(42.8)	14(4.7)	101(34.0)	36.961(12) .000***
	서귀포시	24(18.0)	14(10.5)	39(29.3)	5(3.8)	51(38.3)	
	북제주군	15(15.6)	2(2.1)	37(38.5)	3(3.1)	39(40.6)	
	남제주군	31(32.6)	1(1.1)	34(35.8)	5(5.3)	24(25.3)	
전체		109(17.6)	33(5.3)	237(38.2)	27(4.3)	215(34.6)	621(100)



\*\*\*  $p < .001$

작년 토요일업일에 주로 한 일에 대하여 학부모는 38.2%가 “직장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고 나타났고, 34.6%가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휴식을 하며 지냈다”, 17.6%가 “가정에서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 5.3%가 “자녀들과 함께 체험학습 및 여행을 하였다”, 4.3%가 “주 5일 근무를 하여 시간이 있으므로 자기계발활동을 하였다”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학부모의 61.8%가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었으나 대부분 가정에서 휴식을 하면서 지냈고, 자녀와 함께 직접 체험학습 및 여행을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의 성별과 학년별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소재지역별로는 제주시, 남제주군에 사는 학부모가 “직장에서 근무 하였다”, 서귀포시, 북제주군에 사는 학부모는 “휴식”으로 응답하여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올해(2006학년도) 토요일업일에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활동

올해는 작년보다 토요일업일이 더 증가되어 월2회의 토요일업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일업일에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활동,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올해 토요일업일에 (권장)하고 싶은 활동 (%)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등교	2 (.8)	6 (.8)	30 (4.8)	38 (2.3)
체험학습	102 (42.1)	161 (21.2)	96 (15.4)	359 (22.1)
학습 보충	19 (7.9)	158 (20.8)	225 (36.2)	402 (24.7)
취미·소질 계발	107 (44.2)	185 (24.3)	160 (25.7)	452 (27.8)
가정에서 휴식	12 (5.0)	251 (33.0)	111 (17.8)	374 (23.0)
전체	242 (100)	761 (100)	622 (100)	1625 (100)
$\chi^2(df)$	251.186(8)			.000***

\*\*\*  $p < .001$

올해 토요일업일에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활동,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의 27.8%, 24.7%, 23.0%, 22.1%, 2.3%가 각각 “취미·소질 계발 활동”, “모자란 학습 보충”, “가정에서의 편안한 휴식”, “가족 혹은 친구들과 체험학습 활동”, “학교 등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볼 때 교사는 44.2%가 “취미, 소질 계발 활동”을 권장하고 있고, 학부모는 36.2%가 “모자란 학습 보충”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 학생의 33.0%는 “가정에서 휴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올해 토요일업일에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활동,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차. 올해 토요일업일의 학교 등교 계획

올해 토요일업일에 등교하여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올해 토요일업일의 학교 등교 계획(학생)

		(% )				$\chi^2(df)$
		항상 등교	자주 등교	가끔 등교	등교 않음	<i>p</i>
성별	남	7(1.8)	22(5.8)	92(24.3)	258(68.1)	3.039(3) .386
	여	11(2.9)	22(5.7)	110(28.6)	241(62.8)	
학년	1학년	4(1.6)	11(4.3)	83(32.4)	158(61.7)	14.873(6) .021*
	2학년	11(4.3)	17(6.6)	64(25.0)	164(64.1)	
	3학년	3(1.2)	16(6.4)	55(21.9)	177(70.5)	
소재 지역	제주시	7(2.0)	13(3.8)	72(20.9)	252(73.3)	23.706(9) .005**
	서귀포시	6(3.3)	16(8.8)	54(29.8)	105(58.0)	
	북제주군	3(2.5)	11(9.1)	36(29.8)	71(58.7)	
	남제주군	2(1.7)	4(3.4)	40(34.2)	71(60.7)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6(4.7)	13(10.1)	47(36.4)	63(48.8)	29.018(6) .000***
	12~30학급 미만	11(2.7)	25(6.1)	106(25.7)	271(65.6)	
	30학급 이상	1(5)	6(2.7)	49(22.2)	165(74.7)	
전체		18(2.4)	44(5.8)	202(26.5)	499(65.4)	

\* $p < .05$  \*\* $p < .01$  \*\*\* $p < .001$

올해 토요일업일에 등교하여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65.4%가 “전혀 등교하지 않겠다”, 34.7%가 “등교하겠다”고 응답하여 “등교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났다. 남학생, 학년이 높을수록, 제주시 이외의 지역, 학교규모가 클수록 “등교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볼 때, 성별은 통계적 의의가 없고 학년은  $p < .05$  수준, 소재지역은  $p < .01$  수준, 학교규모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카. 토요일업일 운영 형태

올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토요일업일 운영 형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올해의 토요일업일 운영 형태(학생)

		재택학습	재택과 등교 중 선택	등교	(%) $\chi^2(df)$ <i>p</i>
성별	남	114(31.1)	230(62.8)	22(6.0)	10.136(2) .006**
	여	140(36.6)	235(61.5)	7(1.8)	
학년	1학년	58(22.8)	189(74.4)	7(2.8)	34.200(4) .000***
	2학년	89(35.9)	142(57.3)	17(6.9)	
	3학년	107(43.5)	134(54.5)	5(2.0)	
소재 지역	제주시	79(23.2)	251(73.6)	11(3.2)	51.286(6) .000***
	서귀포시	59(33.5)	105(59.7)	12(6.8)	
	북제주군	60(51.7)	54(46.6)	2(1.7)	
	남제주군	56(48.7)	55(47.8)	4(3.5)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69(55.2)	48(38.4)	8(6.4)	91.733(4) .000***
	12~30학급 미만	159(39.3)	228(56.3)	18(4.4)	
	30학급 이상	26(11.9)	189(86.7)	3(1.4)	
전체		254(34.0)	465(62.2)	29(3.9)	

\*\* $p < .01$  \*\*\* $p < .001$

올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토요일업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62.2%가 “재택학습과 등교 중에서 선택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나타나 대부분의 학교는 재택학습과 등교 중에서 선택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경변인별로는 성별은  $p < .01$  수준, 학년별, 소재지역별, 학교규모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 타. 원하는 주5일수업제 운영 형태

올해 주5일수업제가 월2회로 증가되었는데 원하는 운영 형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원하는 주5일수업제 운영 형태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78 (32.2)	599 (79.8)	242 (39.0)	919 (57.0)
체험학습 및 교과 학습 과제 제시	18 (7.4)	43 (5.7)	126 (20.3)	187 (11.6)
학교에서 특가·적성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진행	15 (6.2)	78 (10.4)	163 (26.3)	256 (15.9)
가정, 지역사회 프로그램 활용	131 (54.1)	31 (4.1)	89 (14.4)	251 (15.6)
전체	242 (100)	751 (100)	620 (100)	1613 (100)
$\chi^2(df)$	562.075(6)			.000***

\*\*\*  $p < .001$

올해 주5일수업제가 월2회로 증가되었는데 원하는 운영 형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7.0%가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낸다”로 나타났다. 교사는 54.1%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활용”으로 나타났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79.8%, 39.0%가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원하는 주5일수업제 운영 형태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파.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 IV-13>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

	집단		전체
	교사	학부모	
수용태세 미흡	54 (22.4)	196 (32.0)	250 (29.3)
교육의 공백화 초래	25 (10.4)	55 (9.0)	80 (9.4)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 증대	68 (28.2)	139 (22.7)	207 (24.3)
사회교육 인프라 미흡	81 (33.6)	158 (25.8)	239 (28.0)
학부모의 부담 증가	13 (5.4)	64 (10.5)	77 (9.0)
전체	241 (100)	612 (100)	853 (100)
$\chi^2(df)$	16.630(4)		.000***

\*\*\*  $p < .001$

올해 주5일수업제의 확대 운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29.3%, 28.0%, 24.3%가 각각 “모든 부모가 주5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태세가 미흡하다”,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 문화형성을 위한 사회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과도한 교육내용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증대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나타났다. 예상 되는 문제점으로는 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 내용 조절 등 적절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주5일수업제의 확대 운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하.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시행 연도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매주 토요일마다 휴업일을 시행하는 것으로 다른 선행 연구물에서는 ‘완전 주5일수업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음)에 적합한 시행 연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시행 연도 (%)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2007년	163 (68.2)	658 (86.4)	354 (58.0)	1175 (72.9)
2008년	35 (14.6)	44 (5.8)	68 (11.1)	147 (9.1)
2009년	13 (5.4)	16 (2.1)	42 (6.9)	71 (4.4)
2010년	17 (7.1)	14 (1.8)	60 (9.8)	91 (5.6)
2011년 이후	11 (4.6)	30 (3.9)	86 (14.1)	127 (7.9)
전체	239 (100)	762 (100)	610 (100)	1611 (100)
$\chi^2(df)$	164.131(8)			.000***

\*\*\*  $p < .001$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시행 연도에 대하여 전체 72.9%가 다음 해인 “2007년”으로 나타났고, 9.1%가 “2008년”으로 응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이후라는 응답도 7.9%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시행 연도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2. 주5일수업제의 교육과정

### 가.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분석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집단		전체
	교사	학부모	
제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	6 (2.5)	109 (17.6)	115 (13.4)
제7차 교육과정을 주5일수업제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	200 (83.0)	311 (50.2)	511 (59.3)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35 (14.5)	200 (32.3)	235 (27.3)
전체	241 (100)	620 (100)	861 (100)
$\chi^2(df)$	81.098(2)		.000***

\*\*\*  $p < .001$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3%가 “제7차 교육과정을 주5일수업제에 맞게 조정(축소)하여 운영한다”, 27.3%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고 나타나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검증한 설문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 제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족한 수업일수(수업시수) 확보 계획

제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족한 수업일수(수업시수) 확보 계획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16>과 같다.

<표 IV-16> 부족한 수업일수(수업시수) 확보 계획(교사)

						(%)
		관계 법령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학일수 축소	평일 수업 증가	$\chi^2(df)$ $p$
성별	남	36(45.6)	38(48.1)	4(5.1)	1(1.3)	.930(3)
	여	65(40.6)	85(53.1)	6(3.8)	4(2.5)	.818
직위	평교사	64(39.0)	91(55.5)	6(3.7)	3(1.8)	2.360(3)
	보직교사	27(46.6)	28(48.3)	3(5.2)	.	.501
교직 경력	10년 미만	10(34.5)	16(55.2)	1(3.4)	2(6.9)	5.208(6) .517
	10~20미만	46(43.4)	52(49.1)	6(5.7)	2(1.9)	
	20 이상	44(42.3)	56(53.8)	3(2.9)	1(1.0)	
소재 지역	제주시	46(39.7)	63(54.3)	6(5.2)	1(0.9)	8.936(9) .443
	서귀포시	18(36.7)	26(53.1)	3(6.1)	2(4.1)	
	북제주군 남제주군	10(40.0) 27(52.9)	14(56.0) 22(43.1)	1(4.0) .	2(3.9)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6(60.0)	4(40.0)	.	.	3.704(3) .295
	12~30학급 미만	63(42.0)	79(52.7)	4(2.7)	4(2.7)	
	30학급 이상	32(39.5)	42(51.9)	6(7.4)	1(1.2)	
전체		101(41.9)	125(51.9)	10(4.1)	5(2.1)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주5일수업제를 운영할 경우 부족한 수업일수(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1.9%가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41.9%가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고 하여 다른 대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방학을 줄인다”거나, “휴업일의 교과 시수를 평일에 1시간씩 더 편성하여 수업시수로 인정한다”는 것은 응답자의 4.1%, 2.1%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수업일수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수업일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17>과 같다.

<표 IV-17>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수업일수(교사)

		220	198	186	180	(%)
		(현행 법령)	(1/10감축)	(220-34)	(외국)	$\chi^2(df)$
						<i>p</i>
성별	남	·	29(36.7)	32(40.5)	18(22.8)	.592(3)
	여	1(.6)	61(38.4)	64(40.3)	33(20.8)	.898
직위	평교사	1(.6)	64(39.5)	63(38.9)	34(21.0)	.940(3)
	보직교사	·	20(33.9)	26(44.1)	13(22.0)	.816
교직 경력	10년 미만	·	12(42.9)	9(32.1)	7(25.0)	2.694(6)
	10~20미만	1(1.0)	36(34.3)	45(42.9)	23(21.9)	
	20 이상	·	42(40.0)	42(40.0)	21(20.0)	
소재 지역	제주시	·	52(45.2)	45(39.1)	18(15.7)	18.988(9)
	서귀포시	1(2.0)	19(38.0)	22(44.0)	8(16.0)	
	북제주군	·	7(28.0)	7(28.0)	11(44.0)	
학교 규모	남제주군	·	13(26.0)	23(46.0)	14(28.0)	1.495(3)
	11학급 이하	·	5(50.0)	3(30.0)	2(20.0)	
	12~30학급 미만	1(.7)	52(34.9)	62(41.6)	34(22.8)	
	30학급 이상	·	34(42.0)	32(39.5)	15(18.5)	
전체		1(.4)	91(37.9)	97(40.4)	51(21.3)	

\* $p < .05$

매주 토요일휴업일을 실시하는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면 수업일수는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40.4%가 “현 법령 220일에서 휴업일 34일을 감한 186일”, 37.9%가 “현 법령 220일에서 교육감 승인으로 1/10감축한 198일”, 21.3%가 “외국의 경우와 같은 180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볼 때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북제주군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외국의 경우와 같은 180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해서는 주6일의 수업 운영에서 실시하였던 220일을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주5일수업제에 확대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18>와 같다.

<표 IV-18>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

	집단		전체
	교사	학부모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 개선	120 (49.8)	102 (16.5)	222 (25.8)
사회교육시설 확충	78 (32.4)	378 (61.1)	456 (53.0)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	21 (8.7)	52 (8.4)	73 (8.5)
사회 인식 전환	22 (9.1)	87 (14.1)	109 (12.7)
전체	241 (100)	619 (100)	860 (100)
$\chi^2(df)$	104.869(3)		.000***

\*\*\*  $p < .001$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53.0%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5.8%가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로는 교사의 49.8%가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를 개선해야 한다”, 학부모의 61.1%가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아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 교육과정 개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교육과정 개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교사)

						(%)
		교과목 수 와 교과 내 용 감축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감축	교육과정 운 영에 자율권 보장	교육프로그램 개발	$\chi^2(df)$ <i>p</i>
성별	남	21(26.6)	35(44.3)	17(21.5)	6(7.6)	16.418(3) .001***
	여	52(32.5)	71(44.4)	8(5.0)	29(18.1)	
직위	평교사	53(32.5)	70(42.9)	14(8.6)	26(16.0)	4.247(3) .236
	보직교사	15(25.4)	29(49.2)	9(45.3)	6(10.2)	
교직 경력	10년 미만	5(17.9)	11(39.3)	2(7.1)	10(35.7)	13.296(6) .039*
	10~20미만	30(28.3)	51(48.1)	8(7.5)	17(16.0)	
	20 이상	37(35.2)	44(41.9)	14(13.3)	10(9.5)	
소재 지역	제주시	36(31.0)	58(50.0)	11(9.5)	11(9.5)	14.355(9) .110
	서귀포시	17(34.7)	15(30.6)	9(18.4)	8(16.3)	
	북제주군	7(28.0)	11(44.0)	2(8.0)	5(20.0)	
	남제주군	13(25.5)	22(43.1)	3(5.9)	13(25.5)	
학교 규모	11학급 이하	2(20.0)	5(50.0)	1(10.0)	2(20.0)	7.218(3) .065
	12~30학급미만	50(33.3)	56(37.3)	17(11.3)	27(18.0)	
	30학급 이상	21(25.9)	45(55.6)	7(8.6)	8(9.9)	
	전체	73(30.0)	106(44.0)	25(10.4)	37(15.4)	

\* $p < .05$     \*\*\* $p < .001$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44.0%가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것”으로, 30.0%가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 수와 교과 내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성별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교직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나타나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바.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교사, 학생의 수업 부담 여부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교사, 학생의 수업 부담 여부에 대하여 분석결과는 <표 IV-20-1>, <표 IV-20-2>와 같다.

<표 IV-20-1> 평일 7교시 운영 여부

	집단			전체 (%)
	교사	학생	학부모	
1회	216 (89.6)	624 (81.6)	425 (70.4)	1265 (78.6)
2회	20 (8.3)	119 (15.6)	113 (18.7)	252 (15.7)
없다	5 (2.1)	22 (2.9)	66 (10.9)	93 (5.8)
전체	241 (100)	765 (100)	604 (100)	1610 (100)
$\chi^2(df)$	66.337(4) .000***			

\*\*\*  $p < .001$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교사, 학생의 수업 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평일(월~금) 정규 시간표에 7교시가 시행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78.6%가 “1회”, 15.7%가 “2회”로 나타났다. 학교의 평일 정규 시간표에 7교시가 시행되는지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20-2> 평일 수업 증가에 대한 부담 정도

(%)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부담을 많이 느낀다	107 (44.6)	348 (46.7)	152 (27.4)	607 (39.4)
부담을 조금 느낀다	119 (49.6)	315 (42.3)	272 (49.0)	706 (45.8)
부담이 없음	14 (5.8)	82 (11.0)	131 (23.6)	227 (14.7)
전체	240 (100)	745 (100)	555 (100)	1540 (100)
$\chi^2(df)$	85.607(4) .000***			

\*\*\*  $p < .001$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교사, 학생의 평일 수업 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7교시가 운영된다면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85.2%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인(학교5일제교육, 1997)에 의하면 일본의 경우도 교육과정 편성의 구체안에서 수업시수의 확보와 관련하여 평일 수업량의 증가로 교사는 수업부담 및 업무부담, 학생들은 집중력 약화 등의 수업부담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토요일수업일의 결시수를 다른 날(월~금요일)에 상충(대체)하는 경우, 학생의 학습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한정시키도록 하였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평일수업 증가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수업 부담 해소 방안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수업 부담 해소 방안에 대하여 분석결과는 <표 IV-21>과 같다.

<표 IV-21>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수업 부담 해소 방안 (%)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수업부담 경감	39 (16.3)	70 (9.2)	68 (11.0)	177 (10.9)
학교 자율	95 (39.6)	390 (51.2)	272 (44.1)	757 (46.8)
수업시수 감축	83 (34.6)	109 (14.3)	108 (17.5)	300 (18.5)
업무부담 경감	12 (5.0)	97 (12.7)	67 (10.9)	176 (10.9)
6교시 넘지 않게	11 (4.6)	95 (12.5)	102 (16.5)	208 (12.9)
전체	240 (100)	761 (100)	617 (100)	1618 (100)
$\chi^2(df)$	85.542(8) .000***			

\*\*\*  $p < .001$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고 있어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되어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46.8%가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고 있어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되어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소 방안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 가.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하여 분석결과는 <표 IV-22>와 같다.

<표 IV-22 >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가정·학교·지역 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 마련	113 (46.7)	181 (24.0)	222 (36.2)	516 (32.0)
가정·지역 사회의 협조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16 (6.6)	93 (12.3)	55 (9.0)	164 (10.2)
가정과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역할	72 (29.8)	227 (30.1)	110 (17.9)	409 (25.4)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1 (16.9)	253 (33.6)	222 (37.0)	521 (32.4)
전체	242 (100)	754 (100)	226 (100)	1610 (100)
$\chi^2(df)$	80.070(6)			.000***

\*\*\*  $p < .001$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의 32.4%가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토요일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32.0%가 “가정·학교·지역 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나타났다. 집단적으로 볼 때 교사는 46.7%가 “가정·학교·지역 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고 나타나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데 비해, 학생과 학부모는 각각 33.6%, 37.0%가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토요일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고 인식하여 당장 시급한 토요일휴업일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나.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정도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23>과 같다.

<표 IV-23>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 정도 (%)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매우 부족	86 (35.5)	132 (17.3)	175 (28.3)	393 (24.2)
부족	132 (54.5)	238 (31.2)	269 (43.5)	639 (39.3)
보통	22 (9.1)	276 (36.1)	144 (23.3)	442 (27.2)
충분	2 (.8)	81 (10.6)	25 (4.0)	108 (6.6)
매우 충분		37 (4.8)	6 (1.0)	43 (2.6)
전체	242 (100)	764 (100)	619 (100)	1625 (100)
$\chi^2(df)$	180.815(8)			.000***

\*\*\*  $p < .001$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의 구축 정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의 63.5%가 “부족하다”고 나타났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정도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의 확대 및 그동안 구축 되어온 인프라의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정도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24>와 같다.

<표 IV-24>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 (%)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도서관, 독서실	41 (16.9)	182 (23.9)	174 (28.3)	397 (24.5)
체육·문화 시설	123 (50.8)	388 (50.9)	216 (35.1)	727 (44.9)
청소년 관련 단체	22 (9.1)	78 (10.2)	90 (14.6)	190 (11.7)
관공서 등에 학습을 돕는 지원센터	54 (22.3)	35 (4.6)	69 (11.2)	158 (9.8)
유익한 교육방송 프로그램	2 (.8)	80 (10.5)	66 (10.7)	148 (9.1)
전체	242 (100)	763 (100)	615 (100)	1620 (100)
$\chi^2(df)$	120.645(8)			.000***

\*\*\* $p < .001$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의 44.9%가 “학생들이 취미나 특기활동을 위한 체육·문화 시설을 확충한다”, 24.5%가 “도서관이나 독서실과 같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토요일수업일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라. 토요일휴업일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

토요일휴업일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25>와 같다.

<표 IV-25> 토요일휴업일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

	집단		전체
	교사	학부모	
학부모 도우미	13 (5.4)	48 (7.8)	61 (7.1)
자원 봉사자	76 (31.4)	80 (13.0)	156 (18.2)
지역의 전문 인사	56 (23.1)	38 (6.2)	94 (11.0)
특기·적성 교육 강사	76 (31.4)	356 (58.0)	432 (50.5)
학교 선생님	21 (8.7)	92 (15.0)	113 (13.2)
전체	242 (100)	614 (100)	856 (100)
$\chi^2(df)$	108.563(4)		.000***

\*\*\*  $p < .001$

토요일휴업일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50.5%가 “특기·적성 교육 강사”로 나타났고, 18.2%, 13.2%, 11.0%, 7.1%의 순으로 각각 “자원 봉사자”, “학교 선생님”, “지역의 전문 인사”, “학부모 도우미”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요일휴업일에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 토요일휴업일에 개방하기 적합한 학교 시설

토요일휴업일에 개방하기 적합한 학교 시설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26>과 같다.

<표 IV-26> 토요일휴업일에 개방하기 적합한 학교 시설

(%)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 교실	3 (1.2)	45 (5.9)	27 (4.4)	75 (4.6)
도서관	86 (35.7)	150 (19.7)	247 (40.0)	483 (29.8)
컴퓨터실	17 (7.1)	220 (28.9)	76 (12.3)	313 (19.3)
체육관	97 (40.2)	163 (21.4)	88 (14.2)	348 (21.5)
학교 모든 교실, 특별교실	38 (15.8)	183 (24.0)	180 (29.1)	401 (24.8)
전체	241 (100)	761 (100)	618 (100)	1620 (100)
$\chi^2(df)$	197.124(8) .000***			

\*\*\*  $p < .001$

토요일휴업일에 개방하기 적합한 학교 시설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의 29.8%가 “도서관”, 24.8%가 “학교 모든 교실 및 특별교실”, 21.5%가 “체육관” 개방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교사들은 40.2%, 35.7%가 각각 “체육관”, “도서관” 개방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는 좀 더 많은 시설의 개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토요일휴업일에 개방하기 적합한 학교 시설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

토요휴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IV-27>과 같다.

<표 IV-27>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 (%)

	집단			전체
	교사	학생	학부모	
없어도 됨	63 (26.0)	212 (27.9)	67 (10.8)	342 (21.1)
1~2가지	95 (39.3)	234 (30.7)	312 (50.2)	641 (39.5)
3~4가지	67 (27.7)	174 (22.9)	169 (27.2)	410 (25.2)
5가지 이상	17 (7.0)	141 (18.5)	73 (11.8)	231 (14.2)
전체	242 (100)	761 (100)	621 (100)	1624 (100)
$\chi^2(df)$	108.195(6)			.000***

\*\*\*  $p < .001$

토요휴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의 39.5%가 “1~2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토요휴업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도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및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5일수업제의 취지로 볼 때 가정·사회적 역할을 적극 홍보·안내하여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도록 유도해야 하겠다. 토요휴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4. 논의

2005학년도는 전국적으로 월1회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었고, 2006년은 월2회 주5일수업제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월1회 시행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 교육과정,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

교육인적부차원의 주5일수업제에 대한 연구학교 운영은 1995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05년 2월에 종결되었고, 현재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의 시행을 위해 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주5일수업제에 대한 반응은 “만족한다(68.3%)”, “불만족한다(6.6%)”로 나타나 대체로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주5일수업제에 대해 외국의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별로 없다(51.5%)”는 응답에서도 나타났듯이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여유와 휴식(46.5%)”,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마련(25.2%)”,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개발”(11.8%), “다양한 체험활동(6.8%)” 순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주5일수업제의 필요성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과중한 학습량과 학습 시간에 시달리고 있어 “여유”, “가족과 함께”라는 기대 효과를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주5일수업제와 관련되어 예상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학력저하이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가 학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사, 학생, 학부모 전체가 “변화없음(84.6%)”, “학력저하(4.2%)”로 나타나 ‘주5일수업제가 실시되면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이 기우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학력의 의미, 학력관의 재해석도 요구되나,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가 운영될 경우는 학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심도 있게 구성하여 학력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면서 학생들이 느낀 어려움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학부모의 “지도 여건 부족”, “사회 여건 미흡”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은 “사회 여건 미흡(35.9%)”, “학습 도우미 없이 스스로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것(33.7%)”으로 인식했다. 이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므로 부모의 의존도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박순경 등(2005)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교 교사의 경우 “평일 수업 부담 증가(51.8%)”, “지역사회의 인프라 부족(2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토요일업일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유익한 활동을 위하여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방안이 요구되며, 또한 학습 도우미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교사, 학부모가 느낀 어려운 점에 대하여 교사는 “평일의 과도한 학습량 지도(31.0%)”, “학부모는 어려움이 없음(43.1%)”,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22.7%)”로 인식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입장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주5일수업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평일의 과도한 학습량을 조절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토요일업일 활동의 바람직한 계획과 실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54.3%)”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는 “학생 스스로”, 교사는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59.9%)”로 나타나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토요일휴업일 활동의 바람직한 계획과 실천은 궁극적으로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하나, 주5일수업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부모, 교사의 도움도 요구된다.

작년 토요일휴업일에 주로 한 일에 대하여 교사는 “가족과 함께(41.7%)”, 학생은 “가정에서의 편안한 휴식(47.3%)”, 학부모는 “정상근무(38.2%)”, “휴식(34.6%)”으로 나타나 아직 근로사업장에서의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볼 때 교사는 성별, 직위, 교직경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학생은 성별, 학년, 소재지역, 학교규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학부모는 소재 지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과중한 학습량과 학습 시간에 시달리고 있어 “휴식”은 중요하나, 휴업일을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지도도 요구된다.

올해(2006학년도) 월2회의 주5일수업제 시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토요일휴업일에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활동 대하여 교사는 “취미·소질 계발(44.2%)”, 학부모는 “모자란 학습 보충(36.2%)”, 학생은 “가정에서의 휴식(33.0%)”으로 인식하여 입장마다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요일휴업일 운영형태는 대체로 “재택학습과 등교 중에서 선택하여 활동(62.2%)”하며, 토요일휴업일 등교 계획은 “전혀 등교하지 않겠다(65.4%)”고 한 학생이 “등교하겠다(34.7%)”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박순경 등(2005)은 2005년 6월 토요일에 등교한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중학교의 경우 월1, 2회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는 83개교의 학년별 평균 등교 학생 수는 6명, 매주 실시하는 9개교의 연구학교 평균 학생수는 13명으로 나타나 연구학교가 일반학교 보다 더 많이 등교하고 있어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수이지만 등교할 학생들이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등교 학생



과악과 함께 등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원하는 주5일수업제 운영 형태는 전체적으로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내는 것(57.0%)”으로 인식한다. 교사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프로그램 활용(54.1%)” 등 교육적 활동을 권장하나, 학생과 학부모는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내는 것(79.8%, 39.0%)”으로 인식했다. 박상호(2003)의 연구에서도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내게 한다(45.1%)”, “가정과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36.4%)”고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수용태세 미흡(29.3%)”, “사회교육 인프라 미흡(28.0%)”, “교사와 학생의 부담 증대(24.3%)”로 나타났다. 박상호(2003)의 연구는 “현재의 과도한 교육 내용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증대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50.5%)”, “주5일 근무제 부분 실시로 수용태세가 미흡하다(18.9%)”,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교육의 공백화를 초래할 수 있다(18.9%)”고 나타나 본 연구와 순위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일치하고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광희 등(2000)은 사회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 내용의 적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시행 연도는 다음 해인 “2007년(72.9%)”으로 나타났고, 박상호(2003)의 연구에 의하면 “2004년(36.9%)”으로 인식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연구자가 조사하는 시점에서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순경 등(2005)의 연구에 의하면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시행 연도로 중학교 교사는 “2008년 이후”, 중학교 학부모는 “2010년”(54.0%)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나.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은 “제7차 교육과정을 주5일수업제에 맞게 조정(축소)하여 운영한다(59.3%)”,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27.3%)”로 나타나 대체로 현행 교육과정의 개정(86.6%)을 요구했다. 박상호(2003)의 “7차 교육과정을 주5일에 맞게 축소하여 운영한다”, 성현주(2003)의 “7차교육과정 축소(55.0%)”와 비교할 때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경환 등(2002)은 주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교육과정 내용의 감축 혹은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듯이 제7차 교육과정이 주6일수업제 상황에서 제시되어 주5일수업제로 축소·시행하는 데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의 감축, 행사의 정선 등을 활용하여도 수업부담 등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족한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확보 계획에 대해서 “교육과정 개편(51.9%)”, “관계 법령 개정(41.9%)”으로 인식했다. 앞으로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 시행에 적합한 수업일수는 현행 법정 수업일수 220일에서 휴업일 34일을 감한 “186일(40.4%)”로 인식했다. 이는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가 실시될 경우 수업일수뿐 아니라 수업시수도 당연히 축소하되, 그렇다고 지나칠 정도의 감축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교사의 경우 “교육과정 구성 및 편제 개선(49.8%)”, 학부모의 경우 “사회교육시설 확충(61.1%)”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단별로 입장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과정 구성 및 편제에 대한 효율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아울러 사회교육시설의 확충도 요구된다.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하여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의 감축(44.0%)”,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 수와 교과 내용 감축(30%)”으로 인식했는데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으로 교사, 학생의 부담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평일 7교시 운영 여부를 파악한 결과 “1~2회(94.3%)”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평일 7교시가 있을 시 교사의 수업부담과 학생의 학습부담 정도는 비교적 “높게(85.2%)” 나타났다.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우리도 학교시간조직에 관한 연구와 실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의 구체안에서 수업시수의 확보와 관련하여 평일 수업량의 증가로 교사는 수업부담 및 업무부담, 학생들은 집중력 약화 등의 학습 부담을 갖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일한 적용이 요구된다. 이도인(1997)도 토요일수업일의 결시수를 다른 날에 상충(대체)하는 경우, 아동·학생의 학습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한정시키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인한 수업부담 해소 방안으로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해야(46.8%)”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계운 등(2002)이 단위학교 교육 과정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고, 이경환 등(2002)이 교육과정의 융통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 다.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것(32.4%)”,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32.0%)”으로 인식했다. 집단적으로 볼 때 교사는 “가정·학교·지역 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46.7%)”고 나타나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데 비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토요일업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33.6%, 37.0%)”고 나타나 당장 시급한 토요일업일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의 구축 정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63.5%)”고 나타났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사회적 인프라의 확대 뿐 아니라 그동안 구축 되어온 인프라의 홍보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이경환 등(2002)은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려면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고, 김민호 등(2002)도 행정 기관, 지역사회 및 단체, 학교수준 협의체로 구성된 주5일수업제 전담기구의 설치를 주장하는데 이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은 “체육·문화 시설(44.9%)”, “도서관 및 독서실(24.5%)”, “청소년 관련 단체(11.7%)”, “관공서 등에 학습을 돕는 지원센터(9.8%)”, “유익한 교육방송 프로그램(9.1%)” 순으로 나타났는데, 박상호(2003)의 연구도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토요일업일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시설 구축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토요일업일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은 “특기·적성 교육 강사(50.5%)”로 인식했고, 그 외에 “자원 봉사자(18.2%)”, “학교 선생님(13.2%)”, “지역의 전문 인사(11.0%)”, “학부모 도우미(7.1%)”순으로 인식했다.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토요일업일에 개방하기에 적합한 학교 시설은 “도서관(29.8%)”, “학교 모든 교실 및 특별교실(24.8%)”, “체육관(21.5%)”, “컴퓨터실(19.3%)”, “일반 교실(4.6%)” 순으로 인식했다. 특히 교사들은 “체육관(40.2%)”, “도서관(35.7%)” 개방으로 인식했는데 비해 학생과 학부모는 좀 더 많은 시설의 개방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

색되어야 할 것이다.

토요일휴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는 “1~2가지(39.5%)”, “3~4가지(25.2%)”, “없어도 됨(21.1%)”, “5가지 이상(14.2%)” 순으로 나타났다. 토요일휴업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도 지역 사회의 일부로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의 개설이 요구된다. 학교도 지역사회의 일부로 생각하여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하며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가능한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및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5일수업제의 취지로 볼 때 가정·사회의 역할을 적극 홍보·안내하여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본 연구는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선행 연구자 및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관련문항 등으로 영역을 나누고 하위항목을 각 영역별로 6~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제주도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지역별 분포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학교의 1, 2, 3학년 각 한 학급 학생과 대상 학생들의 학부모, 그리고 표집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2006년 3월 16일부터 배포하여 24일까지 회수된 교사 300부 중 242부, 학생 787부 중 767부 그리고 학부모 787부 중 625부로 총 1,874부 중 회수된 설문지 1,634부(총회수율 87.19%)를 유효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가.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

작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주5일수업제에 대한 반응은 “만족한다(68.3%)”고 나타나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점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여유와 휴식의 기회가 많아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46.5%)”고 반응하였다. 이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나타난 부정적 영향은 “부정적 영향이 별로 없다(51.5%)”고 나타났으나, 그 다음 순으로 교사와 학부모는 “스스로 시간을 활용하거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비행 증가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22.1%)”고 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5일수업제가 학력에 미친 영향은 “학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84.6%)”고 인식하여 학력이 주5일수업제와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요일휴업일에 학생들이 느낀 어려움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는 “학부모의 지도 여건 부족”, 학생들은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답변하여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교사, 학부모가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은 “어려움이 없다(38.9%)”고 응답하였으나 그 다음 순으로 교사는 “평일의 과도한 학습량 지도(31.0%)”, 학부모는 “프로그램 개발 및 안내(22.7%)”로 응답하여 집단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토요일휴업일 활동의 바람직한 계획과 실천은 “학생 스스로 해야 하는 것(54.3%)”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토요일휴업일에 주로 한 일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대체로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인식한다.

올해 토요일휴업일에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활동으로 교사는 “취미·소질계발(44.2%)”, 학부모는 “모자란 학습 보충(36.2%)”, 학생은 “가정에서의 휴식(33.0%)”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올해 토요일휴업일의 학교 등교 계획으로 학생들은 “전혀 등교하지 않겠다(65.4%)”고 인식하여 미등교로 나타나며, 올해 토요일휴업일 운영형태로 대부분의 학교는 “재택학습과 등교 중에서 선택하여 활동(62.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올해 원하는 주5일수업제 운영 형태로 학생과 학부모는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지내는 것”, 교사는 “가정·지역사회 프로그램 활동” 등 교육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올해 주5일수업제의 확대 운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수용태세 미흡(29.3%)”, “사회교육 인프라 미흡(28.0%)”, “교사와 학생의 부담 증가(24.3%)”로 인식한다. 그러나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시행 연도는 다음해인 “2007년(72.9%)”으로 나타나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나.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주5일수업제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한다(59.3%)”,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27.3%)”고 나타나 대체로 “현행 교육과정의 개정(86.6%)”을 요구한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족한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확보 계획으로 교사들은 “교육과정 개정(51.9%)”, “관계 법령 개정(41.9%)”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교육과정으로 월2회의 주5일수업제를 시행하는 데는 수업부담 등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에 적합한 수업일수로 교사들은 현행 법정 수업일수 220일에서 휴업일 34일을 감한 “186일(40.4%)”, 220일에서 1/10감축한 “198일(37.9%)”로 인식하여, 현행 법정 수업일수의 감축을 원하고 있다. 이는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가 실시될 경우 수업일수도 당연히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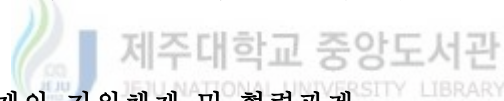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교사는 “교육과정 구성 및 편제 개선(49.8%)”, 학부모는 “사회교육시설 확충(61.1%)”



으로 나타나 집단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으로 교사들은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의 감축(44.0%)”,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 수와 교과 내용 감축(30.0%)”으로 인식하나, 배경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주5일수업제 확대 운영으로 교사, 학생의 수업부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평일 7교시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회”(94.3%)로 나타났고, 평일 7교시가 있을 시 부담 정도는 “부담을 느끼는 것(85.2%)”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수업부담 및 업무부담, 학생들의 집중력 약화 등의 학습 부담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46.8%)”으로 인식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단위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동일한 인식으로 분석된다.



#### 다.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32.4%)”,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32.0%)”으로 나타났다. 집단적으로 볼 때 교사는 “가정·학교·지역 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의 구축(46.7%)”으로 인식하여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데 비해,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의 토요일업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각 33.6%, 37.0%)”으로 인식하여 당장 시급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더 선호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의 구축 정

도는 “부족하다(63.5%)”고 인식한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정도는 미흡하다고 인식했는데, 사회적 인프라의 확대가 요구될 뿐 아니라 그동안 구축 되어온 인프라의 홍보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은 “체육·문화 시설(44.9%)”, “도서관 및 독서실(24.5%)” “청소년 관련 단체(11.7%)”, “관공서 등에 학습을 돕는 지원센터(9.8%)”, “유익한 교육방송 프로그램(9.1%)” 순으로 인식했는데, 토요일휴업일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시설 구축시 반드시 고려할 것으로 분석된다.

토요일휴업일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은 “특기·적성 교육 강사(50.5%)”를 가장 선호하며, 그 외 “자원 봉사자(18.2%)”, “학교 선생님(13.2%)”, “지역의 전문 인사(11.0%)”, “학부모 도우미(7.1%)” 순으로 나타나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해야 할 것이다. 토요일휴업일에 개방하기에 적합한 학교 시설은 “도서관(29.8%)”, “학교 모든 교실 및 특별교실(24.8%)”, “체육관(21.5%)”, 컴퓨터실(19.3%), 일반 교실(4.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물 관리 등의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토요일휴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는 “1~2가지(39.5%)”로 인식한다. 학교도 지역사회의 일부로 생각하여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하며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가능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및 인성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5일수업제의 취지로 볼 때 가정·사회의 역할을 적극 홍보·안내하여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완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2. 결론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에 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작년(2005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월1회의 주5일수업제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고 나타나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주5일수업제는 학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다. 주5일수업제 시행으로 학생들이 느낀 어려움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학부모 지도 여건 부족”, 학생들은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인식하여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올해(2006학년도)부터 실시된 월2회의 토요일수업일 운영 형태는 재택학습과 등교 중에서 선택하며,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토요일수업일에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활동에 대하여 교사는 “취미·소질 계발”, 학부모는 “모자란 학습 보충” 학생들은 “가정에서의 휴식”으로 인식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수용태세 미흡”, “사회교육 인프라 미흡”, “교사와 학생의 부담 증대”로 인식한다.

둘째,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에 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주5일수업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은 “제7차 교육과정을 주5일수업제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고 인식하여 대체로 현행 교육과정의 개정을 요구한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으로 부족한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확보 계획에 대해 “교육과정 개편”,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앞으로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 시행에 적합한 수업일수는 “현행 법정 수업일수 220일에서 휴업일 34일을 감한 186일”로 인식한다. 주5일

수업제로 인해 “평일 수업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해결은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 해결”로 인식한다. 그러나 주5일수업제의 확대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교사는 “교육과정 구성 및 편제 개선”, 학부모는 “사회교육시설 확충”으로 인식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셋째, ‘주5일수업제의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에 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한 결과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의 구축 정도는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가정·학교·지역 사회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 “가정·학교·지역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집단적으로 볼 때 교사는 후자로 인식하여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데 비해, 학생과 학부모는 전자로 인식하여 당장 시급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더 선호하고 있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의 구축 정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교육 시설은 “체육·문화 시설”, “도서관 및 독서실” 등으로 인식하며 토요일업일에 개방하기에 적합한 학교 시설은 “도서관”, “학교 모든 교실 및 특별교실”, “체육관”, “컴퓨터실”, “일반교실”순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토요일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는 “1~2가지”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 볼 때, 주5일수업제는 단순히 학교 수업일수나 시간의 조정이라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행정 제도의 보완, 교사와 학생들의 수업 개념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총체적인 변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주5일수업제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지원체제 및 협력 관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3. 제언

지금까지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주5일수업제에 대한 일반화된 연구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 연구,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단체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확대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의 내용상 범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 현황, 교육과정,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관련 법령 개정, 학습 내용 적정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 더 나아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교육인적자원부, 지역 교육청 및 지역 사회, 청소년단체, 학교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우리나라도 곧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가 시행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5일수업제와 관련된 목적의 달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그 효과성을 연구하는 평가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2005). 2005학년도 월1회 주5일수업제 시행 대비를 위한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연수. 교육과정 연수자료 2005-03.
- 경기도 왕곡초등학교(2002). 주5일제 수업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  
인적자원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 교육법전편찬회 편(2002). 교육법전. 서울 : (주)교학사.
- 교육인적자원부(2000). 주5일제 수업대비 교육과정 연구.  
\_\_\_\_\_ (2001). “학교 주5일제 수업”. 교육과정 기초연구 및 자체  
연수를 위한 자료집.  
\_\_\_\_\_ (2002). 2002년도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자료. 교육과정자료.
- 김민호 외(2002). 주5일수업제 운영 관련 지역수준 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  
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과제 2002-6.
- 김광하 외(2000). 주5일제 수업 대비 교육과정 연구. 교육부 교육과정지원  
센터.
- 김영순(2003). 학교 주5일 수업제에 관한 학부모의 의식. 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동대전고등학교(2004). 주5일수업제 대비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  
인적자원부 지정 교육과정 정책연구학교 운영보고서.
- 박상호(2003). 주 5일 수업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순경 외(2005).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제윤, 이경환, 권영민(2002). 한국 교육 과정의 변천. 서울 : (주)대한 교과서.

- 부산광역시교육청(2005). **주5일수업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2005학년도  
학교정책워크숍자료집. 부산교육 2005-008.
- 서울특별시교육청(2002). **주 5일 수업 준비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자료.
- 성현주(2003). **주5일 수업제에 관한 중학교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남중학교(2004). **주5일 수업제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육과정 정책연구학교 운영보고서.
- 이정환 등(2002). **주5일 수업대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2002년도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과제 답신보고. 학교교육과정연구회.
- 이도인(1996). **학교5일제교내연구**. 대구 : 학사원.
- \_\_\_\_\_ (1997). **학교5일제 교육**. 대구 : 학사원.
- \_\_\_\_\_ (2005). **주5일수업제의 성공적인 도입 방안 탐색**.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 외(2001).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  
방안**. 2001년도 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과제 답신보고. 한국 주5일 수  
업제 연구회.
- \_\_\_\_\_ 외(2003). **주5일수업제 단계적 실시 방향에 관한 연구 - 월1회 실시  
및 관련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연구2003-공모-3. 한국 주5일수  
업제 연구회.
- 이미라(2002). **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윤미 외(2001). **학교 주5일제 운영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2001-26.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외(2004). **주5일수업제 모든 학교 월1회 실시 방안 연구**. 교육인적

- 자원부 교육정책연구.
-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2002). “학교 주5일 수업제”. 인천교육. 제26호.
- 정광희 외(2000). 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 운영 방안 연구 - 학교 주5일수업제 도입과 실행 방안. 수탁연구 CR 2000-58. 한국교육개발원.
-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2005). 주5일 수업제 운영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상설연구학교 연구보고서.
- 제주도교육청(2001). 제주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제주도교육청 고시제2000-5호.
- \_\_\_\_\_ (2004). 2004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학교 운영 보고회. 제주도교육청등록 2004-B-24.
- 제주도제주시교육청(2005). 신나는 토요일휴업일의 길라잡이. 주5일수업제 장학자료. 2005-B-6.
- 조현(2003). 초등학교 주 5일제 수업 시행에 대한 교사의 인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홍식(2004). 주5일수업제 도입 및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림여자중학교(2003). 주5일 수업제를 위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보고서.
- 高階 玲治(1995). 5日制時代の 校内研究讀本. 東京：教育開發研究所.
- 教育開發研究所(1992). 5日制學校經營の 組織 と 運營. 教職研修 6月増刊号.
- 教育開發研究所(1996). 5日制學校經營. 教職研修 3月特別増増刊号.
- 文部省(1992). 學校週5日制の 解説と 事例. 東京：大藏省印刷局.
- 小木 美代子(1992). 學校5日制でどうなるの. 東京：教育開發研究所.
- 兒島 邦宏(1995). 學校5日制讀本. 東京：教育開發研究所.



- 少年少女組織を育てる全国セソタ(1992). *學校5日制なにが問題か*. 東京：青木書店.
- 通口信也(1996). *國際理解教育の課題*. 東京：教育開發研究所.
- 海老原治善(1992). *學校5日制讀本*. 東京：教育開發研究所.
- 河田 悦子(1996). *學校・家庭・地域 連繫 讀本*. 東京：教育開發研究所.
- Berryman, E. S. Bailey, R. T.(1992). *The double helix of education and the economy*. New York: The Institute on Education and the Economy,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Castells, M.(1993). "The information economy and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In Carnoy, Martin et. al.(Eds.). *The new global economy in the information age: reflections on our changing world*. Pennsylvani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Diggs, L.(1999). *Why four days wook make sense for us*. School Administrator Web Additon (Internet address: [http://www.aasa.org/publications/sa/1999\\_reeves\\_side\\_diggs.htm](http://www.aasa.org/publications/sa/1999_reeves_side_diggs.htm)).
- National Conference of States Legislatures(2003). *2003 Four-day school week legislation* (Internet web address: <http://www.ncsl.org/programs/educ/fourdayschwkw.htm>).
- Penner, Glen, ed.(1993). *Rescheduling the traditional school day and year*, SSTA research centre report #93-08.
- Sergiovanni, Thomas.(1995). *The principalship: a reflective perspective*. Boston: Allyn and Bacon.
- Reeves, K.(1999). *The four-day school week*. The School Administrator Web Edition (Internet web address: [http://www.aasa.org/publications/sa/1999\\_03/reeves.htm](http://www.aasa.org/publications/sa/1999_03/reeves.htm))
- The Saskatchewan Educational Leadership Unit(1999). *Alternative school year organizations*, SSTA research centre report #99-09.

< Abstract >

## A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Hong, Seung-Hee**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 Hwa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perception on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and to suggest way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er used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was made by the researcher based on prior researchers and advices from the academic advisor.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randomly selected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and 1,634 copies of the questionnaire(242 teachers, 767 students, and 625 parents) were analyzed using SPSS 11.0 for Windows program.

Data were analyzed to clarify difference of perception of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about five-day-work-week.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expressed their satisfaction with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and replied that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did not have negative effects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However, students pointed the lack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as a probl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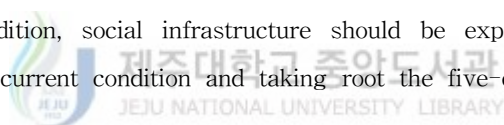
---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

Second, in the area of curriculum, teachers replied that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was imposed burden on them, they solved the burden based on their school's actual conditions. Teachers wanted to decrease the school year from 220 days to 186days. Also, teachers wanted to reorganize curriculum structure and organization and parents wan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community educational institutions to expand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Third, in the area of the support system and cooperation for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participants perceived lack of social infrastructure for students, and replied that the district office and social institutions should develop and provide programs for students. Also they answered that cooperation among families, schools and community should be formed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So,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the curriculum should be reorganized based on current conditions, and based on problems of the actual condition, social infrastructure should be expanded. These will be contributed to the current condition and taking root the five-day-work-week school system.



< 부 록 >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2006학년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선생님들의 건강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 선생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설문 작성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2005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선생님들의 고견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오니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 문항마다 빠짐없이 한 군데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홍 승 희 올림

※ < 기초조사 > 통계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하오니 해당란에 V바랍니다.

1. 성 별 :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2. 직 위 :    \_\_\_ ① 평교사                                \_\_\_ ② 보직교사
3. 교직경력 : \_\_\_ ① 1~10년 미만  
                  \_\_\_ ② 10년 이상~20년 미만  
                  \_\_\_ ③ 20년 이상
4. 소재지역 : \_\_\_ ① 제주시                                        \_\_\_ ② 서귀포시  
                  \_\_\_ ③ 북제주군                                \_\_\_ ④ 남제주군
5. 학교규모 : \_\_\_ ① 11학급 이하  
                  \_\_\_ ② 12학급 이상~30학급 미만  
                  \_\_\_ ③ 30학급 이상

◎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하나만 골라 응답란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수업제’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에 5일은 학교 수업을 하고 토요일은 학교수업이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학교 정규수업이 없더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I.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1. 지난 1년 동안 운영되었던 주5일수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대체로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2.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② 견학, 문화행사, 여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었다.  
 ③ 여유와 휴식의 기회가 많아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  
 ④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다.  
 ⑤ 취미활동과 소질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
3.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던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들의 학습량이 줄어들고 학력이 저하되었다.  
 ② 스스로 시간을 활용하거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③ 학생들의 비행 증가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④ 학원수강, 과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 부담이 더 증가되었다.  
 ⑤ 부정적 영향이 별로 없었다.
4. 주5일수업제 운영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력이 향상되었다.  
 ② 학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학력이 주5일수업제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③ 학력이 떨어졌다.
5. 토요일수업일에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② 사회여건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다.  
 ③ 학습 도우미 없이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④ 체험학습 활동 시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⑤ 체험학습 활동 시에 따르는 안전문제가 미흡하다.
6. 주5일수업제의 운영으로 선생님께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내하는 것이 어려웠다.  
 ② 평일에 과도한 학습량을 지도하기가 어려웠다.  
 ③ 휴업일 사전·사후 지도가 어려웠다.  
 ④ 휴업일 생활 및 안전지도가 어려웠다.  
 ⑤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

7. 토요일휴업일의 활동은 어떻게 계획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 ② 부모님이 세워 주시는 계획을 실천한다.
- ③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 ④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계획하여 실천한다.
- 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8. 작년 토요일휴업일에 선생님들은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 ① 주로 학교에 출근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 ②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재연구를 하였다.
- ③ 장소에 관계없이 자기계발활동을 하였다.
- ④ 교사도 가정에 가면 학부모이므로 가족과 함께 보냈다.
- ⑤ 가정에서 휴식을 하면서 지냈다.

9. 올해 토요일휴업일에 학생들에게 권장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등교
- ② 가족 혹은 친구들과 체험학습 활동
- ③ 모자란 학습 보충
- ④ 취미, 소질 계발 활동
- ⑤ 가정에서의 편안한 휴식

10. 올해부터는 주5일수업제가 월 2회로 증가되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기를 원하십니까?

- ①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낸다.
- ② 체험학습 과제 및 교과 심화·보충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 ③ 학교에서 특가적성 교육 활동, 체험학습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④ 가정과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

11. 주5일수업제의 확대 운영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태세가 미흡하다.
- ②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교육의 공백화를 초래할 수 있다.
- ③ 현재의 과도한 교육내용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증대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 ④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 문화형성을 위한 사회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 ⑤ 학부모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더 증가될 것이다.

12.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매주 토요일마다 휴업일 시행)는 언제부터 시행되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007년                       ② 2008년                       ③ 2009년
- ④ 2010년                       ⑤ 2011년 이후

II.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하여

13. 주5일수업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한다.  
 ② 제7차 교육과정을 주5일수업제에 맞게 조정(축소)하여 운영한다.  
 ③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14. 주5일수업제에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부족한 수업일수(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②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③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방학을 줄인다.  
 ④ 휴업일의 교과 시수를 평일에 1시간씩 더 편성하여 수업시수로 인정한다.

15. 매주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면 수업일수는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20일(법령)  
 ② 198일(교육감 승인으로 220일의 1/10감축)  
 ③ 186일(220일-휴업일34일)  
 ④ 180일(외국의 경우)

16. 주5일수업제의 확대 운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를 개선한다.  
 ②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을 확충한다.  
 ③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한다.  
 ④ 주5일수업제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전환시킨다.

17.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하여 새롭게 교육과정을 개편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교과목 수와 교과 내용을 줄이는 것  
 ②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를 감축하는 것  
 ③ 일선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절대적인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  
 ④ 주5일수업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

18-1. 귀 학교에서는 평일(월~금) 중 정규 시간표에 7교시가 있으십니까?

- ① 1회 있다.                       ② 2회 있다.                       ③ 없다.

18-2. 7교시를 운영한다면 평일에 비해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18-1에서 ①, ②에 답하신 분들만 응답 하십시오)

- ① 부담을 많이 느낀다.                       ② 부담을 조금 느낀다.  
 ③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19.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주5일수업을 하면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되어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수업부담을 경감한다.  
 \_\_\_ ②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_\_\_ ③ 전담교사 확대로 교사의 수업시수를 감축한다.  
 \_\_\_ ④ 보조교사(학습도우미) 채용으로 수업 및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_\_\_ ⑤ 방학을 줄여서라도 수업시수는 6교시를 넘지않게 한다.

Ⅲ.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한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에 대하여

20.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한 가정·학교·지역 사회 관계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가정·학교·지역 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_\_\_ ② 가정·지역 사회의 협조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_\_\_ ③ 학교 밖 학생 학습활동은 가정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_\_\_ ④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21. 토요일휴업일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은 지역 내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부족하다.                    \_\_\_ ② 부족한 편이다.                    \_\_\_ ③ 보통이다.  
 \_\_\_ ④ 충분한 편이다.                    \_\_\_ ⑤ 매우 충분하다.

22.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도서관이나 독서실과 같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  
 \_\_\_ ② 학생들이 취미나 특기활동을 위한 체육·문화 시설을 확충한다.  
 \_\_\_ ③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단체를 확대한다.  
 \_\_\_ ④ 관공서나 문화재 시설 등 각 시설 내에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_\_\_ ⑤ 유익한 교육방송 프로그램 개발하여 방영한다.

23. 주5일수업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어떤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부모 도우미                    \_\_\_ ② 자원 봉사자                    \_\_\_ ③ 지역의 전문 인사  
 \_\_\_ ④ 특기·적성 교육 강사                    \_\_\_ ⑤ 학교 선생님

24. 토요일휴업일에 학교 시설을 개방한다면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일반 교실                    \_\_\_ ② 도서실                    \_\_\_ ③ 컴퓨터실  
 \_\_\_ ④ 체육관                    \_\_\_ ⑤ 학교 모든 교실 및 특별교실

25. 토요일휴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는 어느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없어도 된다.                    \_\_\_ ② 1~2가지                    \_\_\_ ③ 3~4가지                    \_\_\_ ④ 5가지 이상

♣ 바쁘신 가운데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바쁜 학교생활 가운데 설문 작성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2005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지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니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각 문항마다 빠짐없이 한 군데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홍 승 희

※ < 기초조사 > 통계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하오니 해당란에 V바랍니다.

1. 학생의 성별

: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2. 학생의 학년

: \_\_\_ ① 1학년 \_\_\_ ② 2학년 \_\_\_ ③ 3학년

3. 학생이 사는 지역

: \_\_\_ ① 제주시 \_\_\_ ② 서귀포시  
\_\_\_ ③ 북제주군 \_\_\_ ④ 남제주군

4. 학교규모

: \_\_\_ ① 11학급 이하  
\_\_\_ ② 12학급 이상~30학급 미만  
\_\_\_ ③ 30학급 이상

◎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하나만 골라 응답란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수업제’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에 5일은 학교 수업을 하고 토요일은 학교수업이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학교 정규수업이 없더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I.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1. 지난 1년 동안 운영되었던 주5일수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대체로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2.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② 견학, 문화행사, 여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었다.  
 ③ 여유와 휴식의 기회가 많아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  
 ④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다.  
 ⑤ 취미활동과 소질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
  
3.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나타난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부하는 양이 줄어들고 학업성적이 떨어졌다.  
 ② 스스로 시간을 활용하거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③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놀거나, 컴퓨터 오락을 더 많이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④ 학원수강, 과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 부담이 더 증가되었다.  
 ⑤ 부정적 영향이 별로 없었다.
  
4. 주5일수업제 운영이 자신의 학력(성적)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력이 향상되었다.  
 ② 학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학력이 주5일수업제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③ 학력이 떨어졌다.
  
5. 토요일휴업일에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모님이 토요일휴업일에 우리와 함께하실 수 없었던 것  
 ② 사회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하나 적당한 시설과 프로그램 찾기가 어려웠던 것  
 ③ 스스로 휴업일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④ 체험학습 활동 시 혼자가면 위험하게 느껴지거나 교통의 위험이 느껴진 것
  
6. 토요일휴업일의 활동은 어떻게 계획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② 부모님이 세워 주시는 계획을 실천한다.  
 ③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④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계획하여 실천한다.  
 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7. 작년 토요일휴업일에는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 ① 학교 등교
- ② 가족 혹은 친구들과 체험학습 활동
- ③ 모자란 학습 보충
- ④ 취미, 소질 계발 활동
- ⑤ 가정에서의 편안한 휴식

8. 올해 토요일휴업일에 꼭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등교
- ② 가족 혹은 친구들과 체험학습 활동
- ③ 모자란 학습 보충
- ④ 취미, 소질 계발 활동
- ⑤ 가정에서의 편안한 휴식

9. 여러분은 올해 토요일휴업일에 등교하여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항상 등교할 예정이다.
- ② 비교적 자주 등교할 예정이다.
- ③ 가끔 등교할 예정이다.
- ④ 전혀 등교하지 않겠다.

10.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토요일휴업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학생들이 재택(가정)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 ② 재택학습과 등교학습 중에서 선택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 ③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여 학교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11. 올해부터는 주5일수업제가 월 2회로 증가되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기를 원하십니까?

- ①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냈으면 한다.
- ② 체험학습 과제 및 교과 심화·보충 학습 과제를 제시해 줬으면 한다.
- ③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 활동, 체험학습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한다.
- ④ 가정과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했으면 한다.
- ⑤ 과외나 학원수강을 더 많이 했으면 한다.

12.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매주 토요일마다 휴업일 시행)는 언제부터 시행되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007년                       ② 2008년                       ③ 2009년
- ④ 2010년                       ⑤ 2011년 이후

## II.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하여

13-1. 여러분의 학교에서는 평일(월~금) 중 정규 시간표에 7교시가 있으십니까?

- ① 1회 있다.                       ② 2회 있다.                       ③ 없다.

13-2. 7교시를 운영한다면 다른 날에 비해 부담을 느끼십니까?

(13-1에서 ①, ②에 답한 학생들만 응답 하십시오)

- ① 부담을 많이 느낀다.       ② 부담을 조금 느낀다.  
 ③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14.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주5일수업을 하면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되어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준다.  
 ②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③ 각 교과목 전공에 맞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신다.  
 ④ 보조교사를 마련하여 학습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와준다.  
 ⑤ 방학을 줄여서라도 수업시수는 6교시를 넘지않게 해준다.

### Ⅲ.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한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에 대하여

15.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한 가정·학교·지역 사회 관계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학교·지역 사회 간에 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② 가정·지역 사회의 협조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③ 학교 밖 학생 학습활동은 가정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④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16. 토요일휴업일에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은 지역 내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17. 학생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서관이나 독서실과 같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  
 ② 학생들이 취미나 특기활동을 위한 체육·문화 시설을 마련한다.  
 ③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단체를 확대한다.  
 ④ 관공서나 문화재 시설 등 각 시설 내에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⑤ 유익한 교육방송 프로그램 개발하여 방영한다.

18. 토요일휴업일에 학교 시설을 개방한다면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반 교실       ② 도서실(관)       ③ 컴퓨터실  
 ④ 체육관       ⑤ 학교 모든 교실 및 특별교실

19. 토요일휴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는 어느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없어도 된다.       ② 1~2가지       ③ 3~4가지       ④ 5가지 이상

바쁘신 가운데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며 하는 일들이 나날이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 관심을 갖고 보다 더 나은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신 중에도 설문 작성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2005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라 나타난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5일수업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학부모님의 고견은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오니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각 문항마다 빠짐없이 한군데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3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홍 승 희 올림

※ < 기초조사 > 통계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하오니 해당란에 V바랍니다.

1. 설문에 응하신 부모님의 성별

: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2. 설문지를 갖고 간 귀 자녀의 학년

: \_\_\_ ① 1학년 \_\_\_ ② 2학년 \_\_\_ ③ 3학년

3. 부모님이 살고계신 지역

: \_\_\_ ① 제주시 \_\_\_ ② 서귀포시

\_\_\_ ③ 북제주군 \_\_\_ ④ 남제주군

◎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답을 하나만 골라 응답란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수업제’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에 5일은 학교 수업을 하고 토요일은 학교수업이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학교 정규수업이 없더라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I. 주5일수업제 운영 현황에 대하여

1. 지난 1년 동안 운영되었던 주5일수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럽다.
- ② 대체로 만족스럽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불만족스럽다.
-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2.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② 견학, 문화행사, 여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었다.
- ③ 여유와 휴식의 기회가 많아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
- ④ 자기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커졌다.
- ⑤ 취미활동과 소질 계발에 도움이 되었다.

3. 주5일수업제 운영으로 자녀에게 나타났던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들의 학습량이 줄어들고 학력이 저하되었다.
- ② 스스로 시간을 활용하거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 ③ 학생들의 비행 증가 등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 ④ 학원수강, 과제 등으로 인해 정신적 부담이 더 증가되었다.
- ⑤ 부정적 영향이 별로 없었다.

4. 주5일수업제 운영이 자녀의 학력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력이 향상되었다.
- ② 학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학력이 주5일수업제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 ③ 학력이 떨어졌다.

5. 토요일휴업일에 자녀가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
- ② 사회여건이 미흡하여 외부기관의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다.
- ③ 학습 도우미 없이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 ④ 체험학습 활동 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미흡하다.

6. 주5일수업제의 운영으로 학부모님께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휴업일 프로그램에 자녀들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 ②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증가되어 어려웠다.
- ③ 자녀를 돌볼 수 없어서 어려웠다.
- ④ 휴업일 생활지도가 어려웠다.
- ⑤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

7. 토요일휴업일의 활동은 어떻게 계획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 ② 부모님이 세워 주시는 계획을 실천한다.
- ③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 ④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계획하여 실천한다.
- 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8. 작년 토요일휴업일에 학부모님들은 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셨습니까?

- ① 가정에서 직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
- ② 자녀들과 함께 체험학습 및 여행을 하였다.
- ③ 직장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하였다.
- ④ 주 5일 근무를 하여 시간이 있으므로 자기계발활동을 하였다.
- ⑤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휴식을 하며 지냈다.

9. 올해 토요일휴업일에 학부모님은 귀댁의 중학생 자녀에게 어떤 활동을 권장하고 싶으십니까?

- ① 학교 등교
- ② 가족 혹은 친구들과 체험학습 활동
- ③ 모자란 학습 보충
- ④ 취미, 소질 계발 활동
- ⑤ 가정에서의 편안한 휴식

10. 올해부터는 주5일수업제가 월 2회로 증가되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기를 원하십니까?

- ① 현재 일요일과 같이 자유롭게 보낸다.
- ② 체험학습 과제 및 교과 심화·보충 학습 과제를 제시한다.
- ③ 학교에서 특가적성 교육 활동, 체험학습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④ 가정과 지역사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한다.

11. 주5일수업제의 확대 운영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부모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태세가 미흡하다.
- ②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교육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 ③ 현재의 과도한 교육내용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토요일휴업일 실시로 수업일수가 줄지만 배울 내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에서는 교사와 학생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 ④ 학생들이 건전한 여가 문화형성을 위한 사회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 ⑤ 토요일휴업일 체험학습 시의 비용부담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더 증가될 것이다.

12. 전면적인 주5일수업제(매주 토요일마다 휴업일 시행)는 언제부터 시행되어야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2007년                      \_\_\_ ② 2008년                      \_\_\_ ③ 2009년  
\_\_\_ ④ 2010년                      \_\_\_ ⑤ 2011년 이후

## II.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하여

13. 주5일수업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6일 동안 배우도록 했던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한다.  
\_\_\_ ② 제7차 교육과정을 주5일수업제에 맞게 조정(축소)하여 운영한다.  
\_\_\_ ③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14. 주5일수업제의 확대 운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교육과정의 구성 및 편제를 개선한다.  
\_\_\_ ②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_\_\_ ③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한다.  
\_\_\_ ④ 주5일수업제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전환시킨다.

15-1. 귀 자녀의 학교에서는 평일(월~금) 중 정규 시간표에 7교시가 있으십니까?

- \_\_\_ ① 1회 있다.                      \_\_\_ ② 2회 있다.                      \_\_\_ ③ 없다.

15-2. 7교시를 운영한다면 다른 날에 비해 부담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15-1에서 ①, ②에 답하신 분들만 응답 하십시오)

- \_\_\_ ① 부담을 많이 느낀다.                      \_\_\_ ② 부담을 조금 느낀다.  
\_\_\_ ③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16. 현행 제7차 교육과정으로 주5일수업을 하면 평일 수업시수가 증가되어 학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준다.  
\_\_\_ ②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해결한다.  
\_\_\_ ③ 각 교과목 전공에 맞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주신다.  
\_\_\_ ④ 보조교사를 마련하여 학습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와준다.  
\_\_\_ ⑤ 방학을 줄여서라도 수업시수는 6교시를 넘지않게 해준다.



Ⅲ. 주5일수업제 정착을 위한 지원체제 및 협력관계에 대하여

17.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한 가정·학교·지역 사회 관계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학교·지역 사회 간에 교육 협력 체제를 마련한다.  
 ② 가정·지역 사회의 협조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③ 학교 밖 학생 학습활동은 가정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④ 학교(교육청)-지역 사회 기관단체에서 휴업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18. 토요일휴업일에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은 지역 내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19. 자녀가 활용할 수 있는 사회교육 시설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서관이나 독서실과 같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  
 ② 학생들이 취미나 특기활동을 위한 체육·문화 시설을 확충한다.  
 ③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단체를 확대한다.  
 ④ 관공서나 문화재 시설 등 각 시설 내에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⑤ 유익한 교육방송 프로그램 개발하여 방영한다.

20. 주5일수업제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어떤 분야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부모 도우미  ② 자원 봉사자  
 ③ 지역의 전문 인사  ④ 특기·적성 교육 강사  
 ⑤ 학교 선생님

21. 토요일휴업일에 학교 시설을 개방한다면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반 교실  ② 도서실(관)  
 ③ 컴퓨터실  ④ 체육관  
 ⑤ 학교 모든 교실 및 특별교실

22. 토요일휴업일에 학교에서 준비할 적절한 프로그램 수는 어느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없어도 된다.  ② 1~2가지  
 ③ 3~4가지  ④ 5가지 이상

♣ 바쁘신 가운데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